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연구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비교 분석 -



200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강 정 미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연구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비교 분석 -

지도교수 곽진석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강 정 미

강정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주	심	문학박사	박 경 수	인
위	원	문학박사	최 호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차 례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방법	1
2. 선행연구의 검토	5
II. 경남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9
1. 사설구성과 표현방식	9
2. 사설의 의미	24
2.1 친정부모 부고	26
2.2 시집살이 신세	35
III. 전남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38
1. 사설구성과 표현방식	38
2. 사설의 의미	52
2.1 금봉채	54
2.2 중의 복색	59
2.3 신세한탄	62
IV. 지역별 전승양상과 의미	69
V. 결론	72
* 참고문헌 / 75	

A comparative study of <song of weeding a field>'s description stecufucity
“the case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

Kang Jung Mi

Departmen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s <Song of weeding a field> justice in the object and grasped the subject of type and type dimension at each region by. Also <Song of weeding a field> a contents as a matter of feature and a description structure expression and the subject matter which appear led and analyzed, <Song of weeding a field> was recorded total a volume 107 in 『General Introduction to the Oral Literature of Korea』. Among the rest Jeollanam-do 40 side and Gyeongsangnam-do 11 side tried to observe the formal quality and a contents quality of area by editorial in the object.

The chapter II tried to observe the editorial composition <Song of weeding a field> of the Gyeongsangnam-do and meaning of expressive method and editorial from the market. In there is a possibility maiden home parents obituaries seeing, the object of ordeal appears every the mother-in-law, the father-in-law and sister-in-law etc. editorial little by little different. husband's houses saw with the fact that undergoes from an indebtedness the flesh. The anger person after ordeal, leans the mind of oneself and also the searching does. According to development aspect of

event rose being hard, divided every editorial of each type tried with maiden home parents obituary and, ordeal and era to observe the structure which is characteristic.

The chapter III tried to observe the editorial composition <Song of weeding a field> of the Jeollanam-do and meaning of expressive method and editorial from the market. The editorial as was many from the Jeollanam-do and format and subject matter and figurative method variously appeared. When classifies an editorial contents on a large scale, the gold seal not yet 11 side, the appearance a priest 4 side and indebtedness deploring 6 is easy. With the Gyeongsangnam-do and the same becoming the broad assortment with subject matter, by regionally clearly there is a difference. Specially the women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oneself, compare in the area where is different a sentiment and they express in detail. Work being hard, indebtedness deplores, desire etc. with the actuality where oneself is being placed together the figurative method which is various leads and the fact that shows is feature.

The chapter IV reflecting an area public opinion life consciousness with regional victory aspect and the meaning of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 confirmed from the market. The Gyeongsangnam-do region where the mountainous area is many in compliance with a regional quality the folk song variously, winning a victory, was difficult, compared in that and Jeollanam-do the plain the village advanced in the center and the traffic as is easy actively conveyed people among life consciousness and a situation. The quality as a matter of victory of having literature as is and liveliness from between the people song to make up to come contents also there is not only a possibility of becoming abundantly. To make a regional quality keep in the type where it is common in which one time.

This dissertation while <Song of weeding a field> being recorded in 『General Introduction to the Oral Literature of Korea』 about contents feature of expressive method and editorial limited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 in research scope and with description structure analyzed. Did so and the goal which tries to seek a regional victory aspect and the

meaning put. But leads a conclusion from the research scope which is limited and is insufficient is. Organic relationship and quality with the different area leads and with national is ranging the research which is depth leaves with the next subject.



I. 서론

1. 연구목적과 방법

민요는 구비문학의 다른 어느 장르보다 민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중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가창·전승되면서 민중의 생활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해 왔기 때문이다.

민요는 상고 시대에 주술적 심리를 바탕으로 노래가 시작된 이래 부족 국가 시대에 신분이 분화되면서 성립되었다. 또 의식주와 관련하여 생활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노래를 거듭 누적시켰다. 고려 초를 지나면서 민요는 지역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유흥성이 대두하여 활기를 띠면서 다양한 노래가 출현하게 된다. 그 중 노동요는 전통사회에서 민중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노동을 할 때 일정한 리듬에 맞추어 흥을 내어 일하기 위해서, 또는 행동 통일을 하여 능률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노동요이다.¹⁾

노동요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노동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노동요²⁾이며, 농업노동요는 다시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로 나뉜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밭농사요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분포하면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 <밭매기

1) 정상진·박경수 『한국 구비문학의 세계』, 세종출판사, 2004, 64쪽.

2) 노동요는 노동의 종류와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 부록Ⅲ에서는 노동요를 유형별로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별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 잡역노동요로 분류하였다.

노래>이다.³⁾

남성들이 힘을 내거나 동작에 맞추어 일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른 노래와 달리, <밭매기 노래>는 여성들의 생활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밭매기는 여성들이 오랜 시간 하는 일이기에 일하는 사람의 처지나 주변 환경, 신세한탄 등을 일정한 가락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의 사상이나 감정이 많이 반영되어 사설이 풍부하고 양과 질에 있어서도 빼어나 문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서민 여성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했던 <밭매기 노래> 사설의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밭매기 노래> 사설은 노동요로서 시집 간 여성이 주로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에, 시집간 여자가 겪는 생활고, 서러움, 절망 등의 신세한탄과 소망 등이 많이 나타나 있다. 여성들은 <밭매기 노래>를 통해 노동의 고통을 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해내는 지혜를 스스로 얻어냈다.

이러한 사설이 지역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승되어 있는지 비교·분석함으로써, <밭매기 노래>의 지역별 전승양상과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구비 전승되는 민요의 특성상 직접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가 바람직하지만 선행 연구자들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만으로도 민요의 전승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민요 자료집에 방대한 양의 사설이 기록되어 있다.⁴⁾ 그 중 『한

3) 민요의 분류방식과 민요의 명칭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별책부록(Ⅲ)으로 간행된 『한국민요·무가유형분류집』(박경수·서대석 공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을 따른다.

4) 1912년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적 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국의 민요를 속담, 수수께끼와 함께 수집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원래 문서철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후 임동권이 정리하여 『한국민요집』 VI (집문당, 1981)로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지방의 학교와 행정기관들을 통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변조된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요 자체에 관심을 둔 자료 수집은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나, 보다 본격적인 자료집이 출간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최초의 본격적인 민요집은 김소운의 『조선구전민요집』(동경 제일서점, 1933)이 있다. 이것은 신문에 독자들이 투고한 것을 모아 지역별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내놓은 보고서로 모두 82권에 이른다. 민요 자료는 5000여 편인데, 읍면을 단위로 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사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자료보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또 『한국민요대전』은 전국 민요를 체계적으로 녹음하여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에는 CD음반과 해설집(악보, 사설, 자료 이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민요 자료는 1800여 편이 있다.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밭매기 노래>는 조사된 자료가 많지 않을 뿐더러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에는 분류 기준과 시기에 차이가 있다. <밭매기 노래>는 사설과 기능의 특성상 <시집살이 노래>나 <신세타령 노래>와 유동기능을 가진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경우, 특정 기능의 수행에서 불려진다는 점에서 <밭매기 노래>는 ‘기능요’로 분류하였으며, <시집살이 노래>나 <신세타령 노래>는 ‘비기능요’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한국민요대전』에서 <밭매기 노래>는 이 둘을 포함하여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밭매기 노래> 사설 특성 연구가 주목적인 만큼 분류 기준이 다른 두 자료를 연구대상에 함께 포함시키는 건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민요 자료집에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되어 있는 <밭매기 노래>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로 분류한 것이다. 또 최초의 본격적인 민요연구서로는 기능, 내용, 형식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분류한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수선사, 1949)가 있다. 그 후 꾸준히 자료수집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1970년대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I~VIII(집문당, 1961~1992)은 가장 방대한 것으로 직접 조사한 것과 보고된 다른 자료를 합한 1만여 편을 수록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조사·보고한 자료는 김영삼의 『제주도 민요집』(중앙문화사, 1958)과 단일 장르를 대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계명대 출판부, 1970)가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밭매기 노래>를 분류·분석한 결과 총 107편의 자료가 조사되어 있다.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각편(各編)	1	3	5	2	1	11	40	7	11	26

<밭매기 노래>는 전라도 지역,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서 ‘각편’⁵⁾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어 있다. 지리적 환경이나 생활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제주도를 제외하면⁶⁾, 전라남도 <밭매기 노래>는 전체 50%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밭매기 노래>의 전승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좁혀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각편의 수가 많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특히,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에서 비슷한 소재와 의미를 가진 사설을 다수 찾을 수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밭매기 노래> 사설을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물론, 노랫말은 개별적·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집단창작이기 때문에 명확한 분류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밭매기 노래>는 내용이나 형식에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

- 5) 민요의 각편(各篇)이란 전승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으로, 이럴 때 모든 각편은 반드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창자가 부른 노래는 다른 창자가 부른 노래와 어떤 형태로든 다르다. 이럴 때 이 모두가 각편인 것이다. 개인적인 창작에 의한 각편이 공통적으로 누적되어 그 안에서 공통의 구조가 발견되면 그 한 묶음의 각편들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7, 76쪽.
- 6) 제주도 민요에는 여성의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된 여성노동요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여성은 생활 전반에 항상 노동이 있었으며, 여성들은 노래를 통해 노동의 고통을 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해 내려 했다. 제주지역은 조, 보리 등 잡곡 위주의 밭농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자연히 밭농사와 관련된 노래가 발달하고 노동 기능상의 분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사회의 자연환경과 삶의 방식 등과 연관하여 그 지역만의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주도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발매기 노래> 사설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경남지역 <발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을 살펴볼 것이며, III장에서는 전남 지역 <발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지역별로 사설 구성과 표현방식, 사설의 의미를 통해 여성들의 처지와 현실인식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발매기 노래>의 지역적 전승 양상과 의미를 끌어내어 보고자 한다.

2 . 선행연구의 검토

이 논문은 <발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을 통해, 지역별 전승양상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발매기 노래>에 관한 기존 연구물은 소략한 편이다. 따라서 <발매기 노래>에 관한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로는 길태숙⁷⁾과 신은주⁸⁾의 논문이 있다.

먼저, 길태숙은 「<발매기 노래>에서의 죽음에 대한 신화적 해석」(연세대학교, 2002)에서 <발매기 노래>에 나타난 시댁식구들의 죽음의 의미를 신화적 차원에서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사설 해석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킨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죽음이나 시집살이의 고난과 해결로 현실에서의 죽음과 동일시하여 이해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발매기와 출가’, ‘출가 이후의 시련’, ‘되돌아옴’ 등의 며느리 여정에 따라

7) 「<발매기 노래>에서의 죽음에 대한 신화적 해석」(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발매기 노래>에 나타난 ‘남편 찾기’와 ‘결합’의 미」(『열상고전연구』 제15집, 2002)

8) 「경상북도 발매는 소리의 유형분석」(『한국민요학』 제21집, 2007)

불리는 것으로, 즉 입사식⁹⁾을 말하는 이야기나 신화의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논문을 살펴보면, 며느리가 죽음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혹독한 시댁식구나 주인 때문이라기보다 젊은이들의 입사식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며느리가 중의 복색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이승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출가 이후의 시련’에서 절에 가는 것과 머리를 깎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로 며느리가 입사식의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며느리가 머리를 깎는 공간인 절이나 중을 만나는 공간도 며느리가 이전 세계와는 격리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음을 말해준다. 이는 바로 며느리가 시련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되돌아옴’은 입사식에서 재탄생의 의미이다. 며느리는 시집으로 되돌아와서 쑥대밭이 된 시집과 시댁식구들의 묘와 그 위에 핀 꽃을 목격한다. 이는 황폐한 구세계가 죽고 없어진 공간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며느리가 입사식을 마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입사식을 치르고 시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 앞에 펼쳐진 쑥대밭과 묘와 꽃의 표상은 홍수 이야기와 영웅탄생신화에 나타나는 못과 돌의 표상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길태숙은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 나타나 있는 <밭매기 노래>에서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 각편과 비교하여 해석하였고, 또 죽음의 의미와 연관하여 작품 구조를 살펴보았다. <밭매기 노래>는 며느리의 ‘출가’나 ‘되돌아옴’이 밭매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며느리가 매는 황폐한 밭과 돌아와서 보게 되는 쑥대밭이 비교되는 등 며느리의 여정이 서사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9) 보통 입사식은 격리, 죽음의 경험, 재탄생의 단계로 진행되며, 입사식을 거친 후 신참자는 입사식 이전과는 다른 존재를 향유하게 된다. 홍수신화에서 이전의 세계는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듯이 그 이전의 존재는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밭매기 노래>에서 그가 지적한 시댁 식구들의 죽음은 많이 나타나 있지 않다. <밭매기 노래>는 인간 삶의 본질인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노래이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사물에 비유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조동일은 영웅이 아닌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물의 현실적인 사건이 단순하게 일상적인 어휘로 표현되는 것이 서술민요라고 하였다.¹⁰⁾ 곧, 현실의 모습 그대로를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민요는 현재적 입장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죽음의 의미 또한 현실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길태숙의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밭매기 노래>에 나타난 ‘남편 찾기’와 ‘결합’ 의미」(『열상고전연구』 제15집, 2002)가 있다. <밭매기 노래>중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출가했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는 내용에서 부인이 남편과 만나는 내용이 <구렁덩덩신선비>와 <세경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남편찾기’와 ‘결합’에 초점을 맞춰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러 각편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렁덩덩신선비>와 <세경본풀이>와 비교하여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에 그쳐 <밭매기 노래>에서 또 다른 의미는 밝혀내지 못했다.

최근, 신은주는 「경상북도 밭매는 소리의 유형분석」(『한국민요학』 제21집, 2007)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경상북도 <밭매는 소리>의 음악과 사설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유형별로 그 특징을 정리한 연구이다. 연구범위는 『한국민요대전』(MBC, 1995)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안에 있는 세부 지역을 비교·분석한 것이 특징적이다.

10)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 1983, 47~52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에 의해 주로 불려진 <밭매기 노래>는 기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선행 연구는 본고에서 지향하는 연구목적이나 연구대상과 다를 뿐더러,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밭매기 노래>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설구성과 표현방식, 사설의 의미, 지역적 전승양상 등을 분명히 밝혀보도록 하겠다.



Ⅱ. 경남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1. 사설구성과 표현방식

경남 <밭매기 노래> 사설은 일부분 한·두 음절씩 더하고 뺀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4·4조의 형태가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2음보의 리듬은 한국 시가의 기본 리듬(율격)으로, 한가하고 안정감이 있다. <밭매기 노래>는 일의 성격상 협동 작업을 요하지 않으며, 주로 혼자 부르기 때문에 맺고 끊기 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편이다. 그만큼 사설의 줄거리에 의존하기 쉽고, 사설 자체가 서사적 짜임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경남 <밭매기 노래>의 전체적인 사설구성을 살펴보면 <일의 고됨 → 시련(부고소식/점심을 주지 않음) → 기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총 11편의 사설 중 9편의 사설에서 드러나는 구조를 표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머지 2편은 경남 <밭매기 노래>의 특성과 상관없이 흥에 겨워 여러 노래를 혼합하여 부른 것으로 사설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내용적 분류	공간	공통점	시련 과정	시련 대상
친정부모부고(5편)	시택(밭)	일의 고 됨	친정부모 부고소식	시택 / 친정
	친정(길)		관문 열어주지 않음	
시집살이신세(4편)	시택(밭)		점심 주지 않음	부재(임을 기원)

서사민요의 유형구조에 대해서는 조동일의 연구에서 자세히 밝혀진 바

있다.¹¹⁾ 그에 따르면 서사민요는 어느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고난 - 해결의 시도 - 좌절 - (해결)’¹²⁾의 단락소들로 되어 있어서, 단락소에 의한 구조는 일치한다고 한다. 또한 모든 서사민요가 ‘고난’으로 시작하는 것은 평민적 미학의 특징이며, 정상적 해결 또는 역설적 해결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의 구조론은 유형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각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서는 전체 유형구조에서 벗어나 독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 더러 발견되는데, 이런 각편이 다시 전승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요는 공동의 전승이면서 개인의 창작이므로, 전승적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적 측면 역시 중요하며, 아울러 유형 차원의 구조나 주제뿐만 아니라 각편 차원의 구조나 주제 역시 중요하다.¹³⁾

이에 연구자는 경남 <밭매기 노래>의 사설구성을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일의 고됨’, ‘친정부모 부고’, ‘시련’, ‘기원’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밭매기 노래>는 구조화되어 있는 한 편의 사설이다. (가)~(다)는 연구자가 서술 내용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다.¹⁴⁾ 또, 본래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2음보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4음보로 변형하여 서술구조가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11) 조동일, 앞의 책 참조.

12) 네 개의 단락소 중 마지막 해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13) 서영숙,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2002, 154쪽.

14) <8-1 160 거제군 신현읍> : 이상에서 8-1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권 번호이고, 160은 이 민요가 실려 있는 쪽수이다. 이후 계속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는 책명은 생략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겠다.

- (가)불겅이라 나는벌에 멧겅이라 짓은발에 (a)
 한골메고 두골메고 삼세골로 매어가니 (b)
 부고왔소 부고왔소 부모죽은 부고왔소 (c)
 땡기끌러 낚에걸고 비녀빠어 가슴찢어 (d)
 신은벗어 손에들고 집이라고 돌아와서 (e)
 씨금씨금 씨아바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f)
 에라요거 물러서라 매던발을 매라하되 (g)
 씨금씨금 씨어마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h)
 어라요년 물러서라 보리방아 찼어놓고 가라하데 (i)
 씨금씨금 씨누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j)
 에라요거 물러서라 불어놓고 가라하데 (k)
 동동동동 동시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l)
 인제이때 안갔더나 어서배빠 길가거라. (m)
- (나)신은벗어 손에들고 천방지방 나아가서
 한골넘고 두골넘어 삼세골로 넘어가니
 능차소리 나는구나 또한골로 넘어가니
 상고소리 요란하다 또한골로 넘어가니
 생이머리 보이더라 또한골로 넘어서서
 질욱에 상두군아 질밀에 내리거라
 질밀에 상두군아 질우로 오르거라
- (다)사촌에도 묻오랍씨 곽문쫓께 열어주소
 어라요거 물러서러 어제그제 못왔더나
 사촌에도 묻올케야 곽문쫓께 열어주소
 어라요거 물러서라 어제그제 못왔더나

<8-1 160 거제군 신현읍>

(가)에서 c, f, h, j, l 는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반복함으로써 시련의 극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아버지→시어머니→시누이→동서로 시련의 대상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친정부모 부고’의 화소를 반복함으로써 화제의 통일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이외의 부분은 계속 변화되는 병렬구문을 통해 시련이 심화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의 고됨(a~b)에 이어 시련(c~k)의 서술구조가 반복된다. l, m에서는 시댁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는 동서 덕으로 시련이 해소되고 친정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나)에서는 공간이 친정으로 바뀌어 서술구조는 다시 고됨과 시련으로 반복된다. 일의 고됨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정으로 가는 길을 힘들고 고되게 표현하고 있다. 시댁에서 화자는 집(안)이 아닌 밭(밖)에서 하는 일의 고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 -고됨이 길(밖)에서 일어남- 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자는 시댁이나 친정, 그 어디에도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바로 상여를 만나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다.

(다)에서 친정의 문전박대는 친정에서도 내쫓기는 신세를 보여줌으로써 시집살이의 고됨을 극대화한다. 친정에서의 시련은 보통 사촌오빠와 사촌올케로 인해 일어난다. 여기에서 사촌오빠와 올케는 화자에게 적대적인 관계이다. 시댁에서 화자에 대응되는 인물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이고, 자신이 마음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시련에 따른 해결의 전망(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련 이후 친정부모가 돌아가셨음에도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더 좌절할 뿐이다.

본 장에서는 위에서 예로 든 한 편의 각편을 바탕으로, 먼저 1.1에서는 ‘일의 고됨’이 드러나는 사설을 살펴볼 것이다. 1.2에서는 고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듣게 되는 상황, 1.3에서는 일의 고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련’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시련은 친정부모 부고소식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고, 점심을 주지 않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다. 둘 다 내용적인 면에서 시련을 겪는 것으로 묶을 수 있지만, 서술구성상 사설에서 구분되어 나타나므로 1.3에서는 ‘친정부모 부고’와 점심을 주지 않는 것을 ‘시집살이 신세’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친정이나 시댁, 어느 곳에도 없다.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¹⁵⁾을 형상화해 놓은 것으로 ‘기원’을 1.4에서 제시하였다.

1.1 ‘일의 고됨’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경남 <밭매기 노래>는 총 11편이다. 기능요로 분류해 놓은 특성대로 경남 <밭매기 노래>에는 일의 성격이 사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의 고됨’이 드러나는 사설을 살펴보면 11편 중 9편이다. 사설은 다음과 같다.

a. 불겂이라 나는벌에
멧겂이라 짓은밭에
한골메고 두골메고

15) <밭매기 노래>에서 말하는 ‘욕망’이라 함은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본능이라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많은 학설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선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며 기본적 욕구라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도피의 성격으로 보기로 한다.

삼세골로 매어가니

<8-1 160 거제군 신현읍>

b.사래길고 진진발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이삼십골 매고나니

<8-2 190 거제군 일운면>

c.불겔이라 덩은날에

외꽃겔은 지섬발에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십골로 매고나니

<8-3 422 진양군 사봉면>

d.불꽃거치나 더운날에

매똥같이 짓으나발은

한골매고 두골을메이도

<8-5 449 거창군 거창읍>

e.불거치라 더운날에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을 걷어메니

<8-5 753 거창군 웅양면>

f.불거치 덩은날에

거치나 짓은발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 거뒤패니

<8-5 1142 거창군 가조면>

g.한골매고 두골매니

<8-11 297 의령군 정곡면>

h.사래질고 뒤킨이 짙은발은

한골매고 두골매니

<8-11 332 의령군 정곡면>

i. 불겔이라 더운날에

메겔이라 젓은밭의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로 거듭매니

<8-11 500 의령군 지정면>

이상과 같이 사설에서는 아주 더운 날 산같이 잡초가 무성한 밭을 한 골, 두 골, 세 골을 매는 것으로 시작된다. 위 사설은 시댁에서 밭을 매는 노동으로 인한 ‘일의 고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간이 친정으로 변화하는 사설에서 직접적인 노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화자인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는 길을 ‘한골넘고 두골넘어 삼세골로 넘어가니’라고 하여, 이를 ‘고됨’으로 해석하였다.

1.2 ‘부고 소식’

본 연구자는 경남 <밭매기 노래>는 사설 내용상 ‘친정부모 부고’와 ‘시집살이 신세’로 분류하였다.¹⁶⁾ ‘친정부모 부고’는 <일의 고됨 → 부고(소식) → 시련>으로 사설이 전개되고, ‘시집살이 신세’에서는 <일의 고됨 → 점심을 주지 않음 → 시련>을 겪는 것으로 보았다. 둘 다 ‘일의 고됨’은 공통

16) ‘친정부모 부고’는 사설 내용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가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집(시댁)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가려고 하나 시댁식구들은 구박을 하며 못 가게 하는 것으로 대체로 나타난다. 이것은 소재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제목을 ‘친정부모 부고’로 붙였다. ‘시집살이 신세’는 힘들게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려고 집(시댁)으로 돌아가면 시댁 식구는 화자(며느리)에게 그것도 일이라고 점심을 먹으러 왔냐며 주지 않는다. 또는 일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은 점심을 다 주면서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 사설이 전체적으로 신세한탄의 어조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 점심을 주지 않는다는 데서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 ‘시집살이 신세’라고 붙여보았다.

적으로 드러나면서 시련을 맞게 되는 과정은 다르게 나타난다.

‘친정부모 부고’에서는 부고 소식을 듣고도 시댁 식구들의 구박과 트집으로 친정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과 또는 친정으로 가서 오빠나 올케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이 시련으로 제시된다.

다음 제시하는 사실은 일을 하고 있다가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 부분이다.

a. 부고왔소 부고왔소

부모죽은 부고가왔소

댕기끌러 낚에걸고

비녀빼어 가슴짚어

신은벗어 손에들고

집이라고 돌아와서

<8-1 160 거제군 신현면>

b. 부모죽은 부고왔네

신은벗어 들고가고

비녀빼어 땅에꽂고

집이라고 찾아가니

<8-2 190 거제군 일운면>

c. 친정집에 부고왔네

댕 풀어서 낚에걸고

비녀 빼어 품에 품고

친정집에 들어가니

<8-11 297 의령군 정곡면>

d. 편지왔네 편지왔네

그것이라 편지아이라

부모떠난 부고왔네

그거로 봐가지고
매던골로 맬라하니
앞도뒷도 안뵈여도
시어마씨 무섭아서
매던골로 끝을 맺고
집으로 돌아가니

<8-11 332 의령군 정곡면>

e. 받아보소 받아보소

편지 한장 받아보소
외손으로 받은편지
양손으로 펴고보니
부모죽은 부고구나
집이라고 돌아가니

<8-11 500 의령군 지정면>

여기까지는 처음 부고소식을 접하고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친정집에 빨리 가려는 급한 마음이 사설에서 표출된다. 신은 벗어내고, 비녀를 빼고 땅에 꿋고, 머리를 풀어 상(喪) 입은 표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집은 바로 시댁이다. 또 친정으로 바로 들어간 한 편의 사설(e)에서 일의 고됨으로 인한 시련은 나타나지만, 시댁 식구들에 의한 시련은 사설에 표현되지 않는다.

1.3 ‘시련’

다음은 ‘친정부모 부고’에서 부고 소식 후 시련(가)과 ‘시집살이 신세’에서 점심을 주지 않음으로 인한 시련(나)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시집살이

신세'에서는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데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여기의 화자는 시련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원'을 표출하고 있다. '기원'은 말 그대로 시련으로 인한 힘든 마음을 다른 욕망으로 표출하든지, 임(남편)을 찾는 것으로 해소한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화자 개인의 시련 해소 방법인 것이다.

'친정부모 부고'에서 나타나는 시련에는 화자와 적대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공간이 변화됨에 따라 당연히 인물도 달라진다. 공간이 변화되는 사실에는 사실중간에 '시댁→친정'으로 보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서술구조가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사실을 4음보로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가. 친정부모 부고

a. 씨금씨금 씨아바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매던발을 매라하되
씨금씨금 씨어마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어라요년 물러서라 보리방아 짚어놓고 가라하데
씨금씨금 씨누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붙여놓고 가라하데
동동동동 동시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인제이때 안갔더나 어서배빼 길가거라.

(중략) <시댁 → 친정>

능차소리 나는구나 또한골로 넘어가니
상고소리 요란하다 또한골로 넘어가니
생이머리 보이더라 또한골로 넘어서서

질욱에 상두군아 질밀에 내리거라
질밀에 상두군아 질우로 오르거라
사촌에도 물오랍씨 곽문쫘께 열어주소
여라요거 물러서러 어제그제 못왔더나
사촌에도 물올케야 곽문쫘께 열어주소
어라요거 물러서러 어제그제 못왔더나

<8-1 160 거제군 신현읍>

b.그거로 일이라고 점심찾아 네가왔나
어므니이 어므니이 그말마소
울어매가 죽었다고 부고와서 내가왔오
느그부모 어뻐더노 내가죽어 부고있제

<8-2 190 거제군 일운면>

c.친정집에 들어가니 올키애씨 성을내네
성아성아 성내지마라
쌀한되만 젓있이며 니도묵고 나도묵고
꾸중물이 남았이며 니쇠주지 내쇠주나
누룽밥이 눌었이며 니개주지 내개주나

<8-11 297 의령군 정곡면>

d.시어마씨 하는말씀이 앙상말 졸졸해여
그래도 우예두고이 친정곶을 쫓아가니
한쪽손에 부고들고 한쪽손에 신을들고
비네빠어 품에품고 울엄마로 내본다고
한재죽도 재치가서 널곽문조차 달았구나
오빠오빠 우리오빠 오매곽문 끼놔주소
엔기들머 뿌러치고 썰데없는 이것이야
오매곽문 끼놀것가

<8-11 332 의령군 정곡면>

e. 시금시금 시아바닐

동달바신 요며눌아 악달바신 요며눌아
점심때도 못미차서 점심묵자 네가오나
시금시금 시어마님 악달바신 요며눌아
동달바신 요며눌아 점심때도 못미찬데
점심묵자 니가오나 정지문에 동시들은
동실동실 요동시아 악달바신 요동시아
동달바신 요동시아 점심때도 아니되어
점심묵자 니가왔나 (중략)

시금시금 시오마님

명지베 쉼뎃자를 날아놓고 가라한다
날아놓고 갈라커니 베짜놓고 가라한다
그러구로 다해놓고 밀도없는 물동우다
물여놓고 가라한다 그러구로 다해놓고

(중략) <시댁 → 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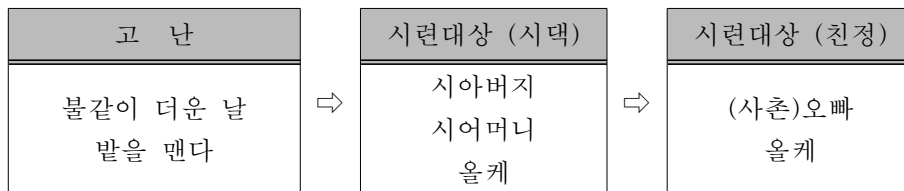
신은벗어 손에들고 한모랭이 돌아가니
까막간치 우는구나 두모랭이 돌아가니
곡소리가 나는걸다 삼세모랭이 돌아가니
곽문닫는 소리난다 아홉상지 물오래비
곽문쪼금 열어주소 부모얼굴 보고갈래
어라이거 물렸거라 사촌에도 물오래비
곽문쪼금 열어주소 부모얼굴 보고갈래
어라이거 물려서라 어제날은 날아니고
오늘날만 날이더나 산이맥히 니못왔나
질이맥히 니못왔나 산도질도 안맥히도
울엄맥히 내못왔소 곽문을 열트리니
옴마옴마 울옴매야 밀만불은 속웃입고

말만붙은 처매입고 짓만붙은 적삼입고
 엄마농문을 열트리고 성한옷을 털어내여
 저거엄매를 다입힌게 그러구로 장사하고
 울키가 밍다하고 성아성아 울키성아
 쌀한되뱅이 잣었으마 너도묵고 나도묵지
 짚한단만 피었으마 네도얹고 나도얹지
 쌀뜨물이 남았으문 절에놓인 니쇠주지
 먼데있는 내쇠주나 누렁뱀이 눌었으마
절에있는 니개주지 먼데있는 내개주나
 형아집은 부자라서 누룩덩이 담장쌀네
 우리집은 간구해서 낫접시로 담장쌀다.

<8-11 500 의령군 지정면>

‘친정부고 부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련은 화자가 인물의 변화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시댁에서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시댁에서는 시아버지 → 시어머니 → 올케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되고, 친정에서는 사촌오빠(또는 오빠)가 올케와 함께 등장하여 화자를 시련에 빠뜨린다. 화자는 부모의 부고소식을 듣고도 시댁에서 눈치를 살피며 친정으로 오지만, 친정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유로 화자는 시댁과 친정에서 겪는 이중 시련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화자는 일의 고됨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원이나 기원적 대상을 사설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어서 제시하는 사설에서는 시련 이후 ‘기원’의 성격이 드러난다. ‘시집살이 신세’에 해당하는 시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시집살이 신세

a.점심때가 지죽하네 아래남강 모욕하고
웃남강에 목욕하고 집이라꼬 찾아가니
시어머니 하는말씀 그것도 일이라꼬
점심차리 찾아오나 시어머니 하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그것도 일이라꼬
집이라꼬 찾아오나 밥이라꼬 주는거는
엿지녁에 묵던개떡 사발눈에 불라주고
쟁이라꼬 주는거는 접시눈에 불라주고

<8-3 422 진양군 사봉면>

b.다른점심 다나와도
이네점심은 아니도 나오네

<8-5 449 거창군 거창읍>

c. 다른점심 다나와도
요내점심 안나오네

<8-5 753 거창군 웅양면>

d.다른아점심 다오는데
나에나점심은 아니오나

<8-5 1142 거창군 가조면>

‘시집살이 신세’의 사설은 ‘친정부모 부고’에 비해 내용 전개가 단조롭다. 화자의 시련은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에게만 점심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점심을 주지 않는 것을 곧 ‘시련’으로 보았다.

고 난	⇨	시 련
불같이 더운 날 받을 땀다		본인에게만 점심을 주지 않는다

1.4 ‘기원’

다음 제시하는 사설은 화자가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임’이나 ‘중’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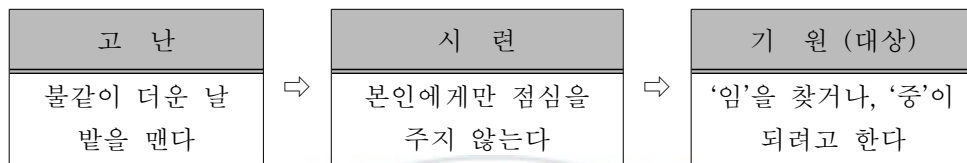
a.아홉쪽에 줄이쳐매 한쪽따서 고깔짓고
두쪽따서 바랑짓고 그나머지 남는거는
중으장승 지어넙고 절간으로 올라갔소
<8-3 422 진양군 사봉면>

b.저녁할줄 모르는고
우러닐은 어데가고
<8-5 753 거창군 웅양면>

c.우러닐은 어데로가고
점슴가리 안비치노
<8-5 1142 거창군 가조면>

화자가 점심을 주지 않는 시련 이후, ‘임’을 찾거나 ‘중’이 되겠다는 기원이 ‘시집살이 신세’ 4편 중 3편에서 드러난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어디

에도 한탄할 곳이 없어 중의 복색을 하고 절로 간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일종의 도피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임’을 찾는 것은 자신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2. 사설의 의미

민요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의 현장과 그 감정에 부합된다. 혹 개인의 창작에 의해 불러졌다 하더라도 구비 전승되는 민요의 성격 때문에 생활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음의 배합으로 이루어진다.¹⁷⁾ 이것은 창자들이 전해들은 내용에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더 보태거나 고치면서 전승시킨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민요의 자유로운 전승 과정을 통해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지방마다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그 유형이나 내용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경남 <밭매기 노래>는 내용에 따라 ‘친정부모 부고’와 ‘시집살이 신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밭일을 하다가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듣는 것과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점심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처

17) 김경숙, 「민요의 인식과 개념」,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20쪽.

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각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사설 내용에서는 중심이 되는 소재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기능별 분류에 따른 <발매기 노래>는, 경남 지방 총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도표에는 경남 <발매기 노래> 각편을 차례대로 제시하였으며, 제목은 구연자나 조사자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옮겼다. 또 읍·면 단위를 기본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연자의 성별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다. 소재는 전체 사설 내용을 통해 중심이 되는 것을 본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출전은 『한국구비문학대계』를 기본 자료로 하였으며, 앞의 숫자는 권 번호이며, 뒤는 민요가 실려 있는 쪽수이다.

번호	제 목	지 역	구 연 자	성별	소 재	출 전
1	발매기 노래	신현	주 순 선	여	친정부모 부고	8-1, 160
2	발매기 노래	장승포	변 순 남	여	기 타	8-1, 469
3	발매기 노래	사등	이 금 수	여	기 타	8-2, 75
4	발매기 노래	일운	현 순 금	여	친정부모 부고	8-2, 190
5	발매기 노래	사봉	황순희, 성재희	여	시집살이 신세	8-3, 422
6	발매기 노래	거창	이 순 애	여	시집살이 신세	8-5, 449
7	발매기 노래	웅양	이 선 이	여	시집살이 신세	8-5, 753
8	발매기 노래	가조	오 춘 자	여	시집살이 신세	8-5, 1142
9	발매기 노래	정곡	진 강 수	여	친정부모 부고	8-11, 297
10	발매기 노래	정곡	강 순 계	여	친정부모 부고	8-11, 332
11	시집살이	지정	박 연 악	여	친정부모 부고	8-11, 500

사설 내용은 ‘친정부모 부고’ 5편과 ‘시집살이 신세’ 4편으로 나눌 수 있다. 나머지 2편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했다. 기타 항목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콩기름나물이 제책이요
 옥에갓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얼시구나 좋다 정말로 좋아 너무나 좋은 줄 모르겠네

<2. 발매기 노래, 장승포읍, 변순남, 여>

이것은 <발매기 노래>라 하였지만 채록 현장에서 흥에 겨워 여러 노래를 혼합하여 부른 것 중 한 편이다. 발매기할 때 불렀던 기능요가 놀이 때 주로 불리면서 비기능요로 된 것이다. 경남 <발매기 노래>의 주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기타’로 설정하였으며, 내용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발매기 노래> 사설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기로 한다.

2.1 친정부모 부고

불겅이라	나는별에	멧겅이라	짓은발에	
한골메고	두골메고	삼세골로	매어가니	
부고왔소	부고왔소	부모죽은	부고가왔소	
탱기끌러	낱에걸고	비녀빼어	가슴찔어	
신은벗어	손에들고	집이라고	돌아와서	
씨금씨금	씨아바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매던발을	매라하되	
씨금씨금	씨어마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어라요년	물러서라	보리방아	찢어놓고	가라하네
씨금씨금	씨누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불여놓고	가라하데	
동동동동	동시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인제이때	안갔더나	어서배빼	길가거라	

댕기풀러	냘에걸고	비녀빠어	가슴찔러
신은벗어	손에들고	천방지방	나아가서
한골넘고	두골넘어	삼세골로	넘어가니
능차소리	나는구나	또한골로	넘어가니
상고소리	요란하다	또한골로	넘어가니
생이머리	보이더라	또한골로	넘어서서
질옥에	상두군아	질밀에	내리거라
질밀에	상두군아	질우로	오르거라
사촌에도	물오랍씨	곽문쪼께	열어주소
여라요거	물러사러	어제그제	못왔더나
사촌에도	물올케야	곽문쪼께	열어주소
여라요거	물러서라	어제그제	못왔더나

<1. 발매기 노래, 신현, 주순선, 여>

아주 더운 날 며느리는 산 같이 잡초가 무성한 밭을 매러간다. 밭을 매고 있다가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듣고 신을 벗어 들고 급하게 집(시댁)으로 향한다. 그러나 시댁 식구 모두가 며느리의 친정부모 부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만 더 시킬 뿐이다. 시어머니에게 부고소식을 말하니 보리방아 찼어놓고 가라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누에게 말했더니 불을 넣어놓고 가라한다. 하지만 며느리와 같은 입장인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알렸더니, 어서가라며 보내준다. 이처럼 시집 식구들의 태도는 적대적으로, 동서는 우호적으로 그려진다. 그런 다음 공간은 시댁에서 친정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신을 벗어 들고 급하게 집(친정)으로 향하지만 고개 넘어가는 길에서 벌써 상고 소리가 난다. 상두꾼을 만나 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늦게 온 것을 구박할 뿐 관문은 열어주지 않는다. 친정으로 왔지만, 딸이 믿고 의지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대상은 당연히 없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대하는 오빠와 올케는 적대적 인물로 그려진다.

적대적인 인물		우호적인 인물
시댁 - 시어머니, 시누이	↔	동서
친정 - 사촌오빠, 사촌올케		×

시댁에서 머느리는 힘들게 받을 매다가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듣고, 밭(밖)에서 일하다가 집(안)으로 들어간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전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여기서 중간 매개자는 바로 자신과 처지가 같은 동서가 된다. 동서 덕으로 급하게 친정으로 향하지만, 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는다. 친정으로 장소가 바뀌는 내용에서도 ‘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길(밖)에서 상여 소리를 듣는다. 길 위에서 관문이라도 열어 부모 얼굴 한 번 보고 싶지만 사촌오빠와 올케는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시집간 딸에게 결국 마음 의지할 곳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에도 신세한탄이나 기원적인 현실 대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사설은 부고소식을 듣고도 친정으로 가지 못하고 시댁에 머무르는 장면이다.

(가)사래길고 진진받을¹⁸⁾

한골매고 두골매고 이삼십골 매고나니
 부모죽은 부고왔네 신은벗어 들고가고
 비네빼어 땅에꽃고¹⁹⁾ 집이라고 찾아가니
 그거로 일이라고 점심찾아 네가왔나

18) 사설을 다시 말할 때에는 이 부분 다음에 ‘메곶이나 갯인밭을’을 첨가하였다.

19) 비녀를 빼어 땅에 꽃고, 머리를 풀어 상을 입은 표시를 하고.

(나)어므니이 어므니이 그말마소²⁰⁾
 울어매가 죽었다고 부고와서 내가왔오
 느그부모 어땀더노 내가죽어 부고있제

<4. 발매기 노래, 일운, 현순금, 여>

(가)와 (나)는 한 편의 사설이다. (가)는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가 친정부
 모의 부고소식을 듣게 된다. 신을 벗어두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
 어머니는 그것도 일이라고 점심을 찾으러 왔냐고 구박한다. 이것은 힘들게
 일하다가 점심도 먹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고 있는 사설과 내용이 일
 치한다. 하지만, 부고 소식이 사설 전체의 내용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
 문에 이를 친정부모 부고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나)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을 하다 점심을 먹으러 온 줄 알고 착
 각한 것이다. 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서
 술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부모 부고소식을 듣고도
 자신이 죽어야 부고가 있지 ‘너그(며느리)부모’ 부고가 어땀냐며,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사설은 마무리된다. 말 그대로 친정부모 부고
 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신세한탄이나 자신의 처지를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은 것이 경남 <발매기 노래>의 특징이다.

한골매고 두골매니 친정집에 부고왔네
 땡기풀어서 낡에걸고 비내빠어 품에 품고
 친정집에 들어가니
 울키애씨 성을내네 성아성아 성내지마라
 쌀한되만 잣있이머²¹⁾ 너도묵고 나도묵고

20) ‘그말마소’를 한 번 더 반복해야 율격이 맞는데, 노래할 때 한 음보를 생략하여 불렀다.

21) 잣혔으면. 밥을 지었으면.

꾸중물이 남았이며 니쇠주지 내쇠주나
 누룽밥이 눌었이마 니개주지 내개주나

<9. 발매기 노래, 정곡, 진강수, 여>

이 사설에서는 시댁에서의 고난이나 시련은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부모의 부고소식을 듣고 친정으로 간다. 그리고 화자와 대응되는 인물인 올케가 등장한다. 화자인 며느리는 자신이 마음 둘 곳인 친정집에 왔으나, 의지할 곳이 없다. 다만 올케가 등장한다. 올케는 화자의 친정에서 며느리이다. 올케인 며느리는 지금까지 시집살이를 하다가 시부모님 부고소식에 자신이 안주인 노릇을 한다. 그래서 친정으로 온 화자에게 화를 낼 수 있다.

화자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올케에게 “밥 있으면 너도 먹고 나도 먹자”라고 말한다. 화자는 시댁에서 열심히 일다가 부고소식에 밥도 못 먹고 급하게 온 것이다. 즉, 사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힘든 노동에서 화자는 시댁에서 점심을 얻어먹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래질고 뒤통이 짚은발을
 한골매고 두골매니 편지왔네 편지왔네
 그것이라 편지아이라 부모떠난 부고왔네
 그거로 봐가지고 매던골로 맬라하니
 앞도뒷도 안뵈여도 시어마씨 무섭아서
 매던골로 끝을맺고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마씨 하는말씀이 양상만 졸졸해야
 그래도 우예두고이 친정골을 쫓아가니
 한쪽손에 부고들고 한쪽손에 신을들고
 비네빠어 품에 품고 울엄마로 내본다고

한재죽도 재치가서	넬곽문조차 닫았구나
오빠오빠 우리오빠	오매곽문 끼놔주소
엔기들머 뿌러치고	썰데없는 이것이야
오매곽문 끼놀것가	

<10. 발매기 노래, 정곡, 강순계, 여>

이 사설은 시댁에서의 시련과 친정에서의 시련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먼저 시댁에서 힘들게 발일을 하고 친정부모의 부고소식을 들어도 시어머니가 무서워 바로 일어나지도 못한다. 매던 발을 다 맨 후에야 집으로 가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한다. 일반적으로 며느리는 시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는 소극적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 사설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친정으로 쫓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화자는 한 쪽 손에 부고를 들고 신을 들고 비녀를 품고 급하게 친정으로 가지만 고개 넘어가는 길에서 벌써 닫힌 부모의 관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오빠는 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뿌리친다. 구연자는 노래에 이어서 이야기로 ‘뿌리치고 매치고 곱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결국 시집 간 딸은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버림받게 된다.

이 사설은 발을 뭍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심심할 때는 신세 한탄조로 부른다고 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녀자들이 모여 있을 때면 신세 한탄조로 불렀을지 짐작할 수 있다.

불겅이라	더운날에	메겅이라	젖은발의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고	거듭매니
파랭이썸놈	오는구나	받아보소	받아보소
편지한장	받아보소	외손으로	받은편지
양손으로	펴고보니	부모죽은	부고구나

집이라고 돌아가니	시금시금 시아바님
동달바신 ²²⁾ 요며놀이	악달바신 ²³⁾ 요며놀이
점심때도 못미차서	점심묵자 네가오나
시금시금 시어마님	악달바신 요며놀이
동달바신 요며놀이	점심때도 못미찬데
점심묵자 니가오나	정지문에 동시들은
동실동실 요동시아	악달바신 요동시아
동달바신 요동시아	점심때도 아니되어
점심묵자 니가왔나	부고왔소 부고왔소
부모죽은 부고왔소	시금시금 시오마님
명지베 싯뎃자를	날아놓고 ²⁴⁾ 가라한다
그러구로 다해놓고	밀도없는 물동우다
물여놓고 가라한다	그러구로 다해놓고
댕기풀어 에걸고	비네빠어 품에꽃고
신은벗어 손에들고	한모랭이 돌아가니
까막간치 우는구나	두모랭이 돌아가니
곡소리가 나는걸다	삼세모랭이 돌아가니
곽문닫는 소리난다	아흠상지 몸오래비
곽문쪼금 열어주소	부모얼굴 보고갈래
어라이거 물렸거라	사촌에도 몸오래비
곽문쪼금 열어주소	부모얼굴 보고갈래
어라이거 물러서라	어제날은 날아니고
오늘날만 날이더나	산이맥히 니못왔나
질이맥히 니못왔나	산도질도 안맥히고
울엄맥히 내못왔소	곽문을 열트리니

22) 말만 똑똑한.

23) 악랄이같이 영악한.

24) 베짖 날실을 가지런히 벌려 감아 놓고.

옴마옴마 울음매야	밑만붙은 속옷입고
짓말붙은 적삼입고	엄마농문을 열트리고
성한옷을 털어내여	저거엄매를 다입힌께
그러구로 장사하고	올키가 밍다하고
성아성아 올키성아	쌀한되뱅이 젓었으마
너도복고 나도묵지	짚한단만 피었으마
네도얹고 나도얹지	쌀뜨물이 남았으문
절에놓인 니쇠주지	먼데있는 내쇠주나
누렁뱀이 놀었으마	절에있는 니개주지
먼데있는 내개주나	형아집은 부자라서
누룩딩이 담장쌓네	우리집은 간구해서
놋접시로 담장쌓다	

<11. 시집살이, 지정, 박연악, 여>

이 사설은 조사자가 발매편 때에 하는 노래를 요구했으나, 구연자가 서두에만 발매기 사설이 있는 민요를 부른 것이다. 채록된 자료에는 제목이 ‘시집살이’로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시집살이요는 ‘시집간 여자가 시집생활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노래’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시집살이요가 대체로 노동요로 분류되면서 노동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적 성격이 강한 민요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후 가족 제도의 변화와 가정 내에서 노동력이 필요했던 작업들이 기계화되면서 시집살이요를 구연하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그 기능적 성격이 비기능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시집살이요는 기능적, 비기능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⁵⁾

위 사설은 기능요인 발매기 노래로 구분해 놓았다. 사설에서 알 수 있는

25) 김종식, 「시집살이요 비교 연구」, 『민요론집』 제4호, 민속원, 1995, 214쪽.

것처럼 부모의 부고소식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연자에 의해 사설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표현된다. 또, 사설구성도 짜임새 있으며, 한탄적 어조가 강하게 드러난다. 그만큼 사설도 길어진 것이다.

불같이 더운 날 산처럼 잡초가 무성한 밭을 거둑 매고 있는데, 친정부모의 부고소식을 듣는다. 일의 고됨은 다른 사설과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이후의 시련은 내용이 풍부해짐에 따라 그만큼 시련도 커진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말만 똑똑하고 악발이같이 영악하다고 하면서 점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하다 말고 점심 먹으러 왔다고 구박을 한다. 시어머니와 동서들도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구박을 반복한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베 짚 낱실을 가지런히 벌려 감아 놓고 가라 한다. 일을 다 하고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밭도 없는 물둥이에 물을 길어 놓고 가라고 한다. 시댁 식구들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다.

화자인 며느리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시집살이에 대해 마음고생이 더 심하다. 우여곡절 끝에 친정으로 가는데 친정 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다. 한 모퉁이, 두 모퉁이, 세 모퉁이 힘들게 돌아가는데 까막까치 우는 소리에 곡소리, 관 문 닫는 소리까지 난다. 화자는 길에서 죽은 부모 관을 보게 되지만, 아홉 상주의 맏오라버니는 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여러 날이 있었는데, 산이 막혀서 못 왔나, 길이 막혀 못 왔나’ 구박하며 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화자는 시댁 가족의 구박으로 못 왔다고 대답하니 드디어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죽은 어머니는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다. 화자인 딸은 달려가서 농문을 열고 괜찮은 옷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입힌다.

그럭저럭 장사(葬事)를 지내고 생각하니, 화자에게는 친정이지만 올케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된다. 올케 또한 어쩌면 시집살이의 고됨으로 죽은 시부모에게 입지 않는 것과 같은 행색으로 관문을 닫았는지 모른다. 이것

은 며느리의 소극적 반항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그래서인지 별다른 말없이 올케에게 밥을 해서 “너도 먹고 나도 먹자”고 한다. 올케가 밥을 해서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없지만, “밥해서 쪼 한 단과 쌀뜨물이 남아도 곁에 있는 너의 소에게 주지 먼 데 있는 자신의 소에게 주냐”고 한다. 결국 자신에게 밥 한 끼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설 마지막에는 관용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형아 집은 부자라서 늘 은밥이 담장을 쌓고 자신의 집은 가난해서 늦접시로 담장을 쌓는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인정을 베풀지 않는 올케에게 화자의 서러운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정부모 부고’ 사설에서는 모두 동일한 사설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며, 고난과 시련에도 어떤 기원적 대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사설은 마무리 된다.

2.2 시집살이 신세

불겉이라 덤은날에	외곶곶은 지섬밭에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십골로 매고나니
짐슴때가 지족하네	아래남강 모욕하고
웃남강에 목욕하고	집이라꼬 찾아가니
시어머니 하는말씀	그것도 일이라꼬
점심차리 찾아오나	시어머니 하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그것도 일이라꼬
집이라꼬 찾아오나	밥이라꼬 주는거는
엳지녁에 묵던개떡	사발눈에 불라주고
쟁이라꼬 주는거는	접시눈에 불라주고
아홉쪽에 줄이쳐매	한쪽따서 고갈짓고

두뚝따서 바람짓고 그나마머지 남는거는
중으장승 지어입고 절간으로 올라갔소

<5. 발매기 노래, 사봉, 황순희·성재희, 여>

불같이 더운 날 산처럼 잡초가 무성한 밭을 매려고 하니, 얼굴빛이 노랗게 기가 질릴 만도 하다. 밭일을 힘들여 하고 점심때가 되어 집이라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그것도 일이라고 점심을 먹으러 왔냐고 타박을 한다. 그래서 고작 주는 점심이 어제 저녁 먹던 개떡이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개떡을 보기 싫은 사발에 담고, 그것도 모자라 간장도 보기 싫은 접시에 담아준다. 일을 하다 들어온 며느리가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사발눈’, ‘접시눈’에 담아준다고 표현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이에 며느리는 시집살이가 서럽고 힘들어 집을 나간다.

고칼과 바람을 지어입고 중의 복색으로 절간으로 가는 것을 보면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음을 알 수 있다.

a. 불꽃거치나 더운날에 매뚱같이 짓으나발은
한골메고 두골메이도 다른점심 다나와도
이내정심은 아니도나오네

<6. 발매기 노래, 거창, 이순애, 여>

b. 불거치라 더운날에 한골메고 두골메고
삼세골을 걷어메니 다른점심 다나와도
요내점심 안나오네
저녁할줄 모르는고 우러님은 어데가고

<7. 발매기 노래, 웅양, 이선이, 여>

c. 불거치 덥은날에 거치나 짓은발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 거뒀매니

다른아점슴 다오는데 나에나점슴은 아니오나
우런님은 어데로가고 점슴가리 안비치노

<8. 발매기 노래, 가조, 오춘자, 여>

위 세 편은 모두 불같이 더운 날 힘들게 밭을 매는데, 다른 사람 점심은 다 주면서 정작 며느리에게는 점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개된다. 남편을 매개로 형성된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일을 한 화자에게는 점심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시집살이에 대한 신세를 ‘임’(남편)을 찾는 것으로 한탄한다. 하지만 시집살이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사설로 자신의 생활 현상만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발매기 노래>의 사설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친정부모 부고’나 ‘시집살이 신세’에서 자신의 신세한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 골, 두 골, 세 골, 밭을 맨다’(고난)는 일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설은 기능요로 분류되어 있다.

Ⅲ. 전남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1. 사설구성과 표현방식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전남지역의 <밭매기 노래>는 비교적 많은 각편이 조사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밭매기 노래>가 많이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설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단조롭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체로 자신의 처지나 신세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사설에서 잘 나타난다. 4·4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경남에 비하면 그 넘나들이 큰 편이며, 율격적으로 규칙적이지도 않다. 규칙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작품의 율격적 의의가 감소되거나 작품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율격의 다양한 표출을 통해 자유로운 정서적 추이나 의미의 극적 전환 및 이완을 이룸으로써, 규칙에의 순응이 창출해내는 율격적 효과보다 강한 서정적 효과가 촉발되는 경우가 더 많다.²⁶⁾ 즉, 경남의 사설과 다르게 정형적 율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셈인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못하것네 못하나것다

암만 하려해도

아이고 못하나것다

날데러 가소

날데러나 가소

제발 덧고

26)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27쪽.

어이고 날데러가소

<6-3 178 고흥군 도양읍>

b. 못다나맬 발 다맬라다

금봉채를 잃었고야~

금봉채 하나에 칠백냥해도

내당혀춤세

<6-8 225 장성군 북하면>

본래 <밭매기 노래>는 여성의 노동요로 전승되는 것이다. a는 구연자에게 장소와 상관없이 밭매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채록한 것이기에 사실이 밭매기의 상황과 맞지 않다. 또, 남성 구연자가 부른 것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일의 능률을 위해 부른 것으로 노랫말보다는 일의 현장에 따라 노랫말을 매기기 때문에 노랫말이 일정한 주제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²⁷⁾

전남 <밭매기 노래>에서 남성 구연자에 의해 가창된 것은 대체로 의미 없는 여음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일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결속과 일체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성 구연자에 의해 불려진 <밭매기 노래> 사실의 뒷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개깡깡 게게야

기게깡게 게게야

기게기게 기게게게 게게

<6-1 487 진도군 지산면>

27) 권오경, 「영남권 <논매는소리>의 전승양상과 사실구성의 특질」, 한국민요학 12집, 2003.

b.얼~사 좋다고 재명화라

<6-2 313 함평군 엄다면>

c.동기다당실 동기다당실

임자버리고 어디를가

<6-2 314 함평군 엄다면>

d.허이허이 허로 상사뒤여

<6-5 438 해남군 화산면>

e.아리시구나 허이 허이야

애야 멈돔매로고나

<6-7 468 신안군 신의면>

f. 에~에루 상사디야

<6-9 664 화순군 이서면>

g. 에야 디야 에~야 어야 어야 디어라

사랑이로구나

<6-10 124 화순군 능주읍>

이상과 같이 남성 구연자가 부른 <밭매기 노래>는 대체로 의미없는 여음구가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남성이 논매기를 할 때 부르는 여음을 밭매기 노래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혼자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밭매기 노래>의 경우, 여음보다는 사설 위주로 불린다. 이 경우, 여음 위주의 민요보다 사설 위주의 민요가 문학적 서정성을 더 풍부하게 지닌다. 이는 혼자서 장시간 단순노동을 하는 동안 더 많은 상상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여성노동에서 불리는 노래가 사설의 내용이 다양하고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나다는 사실은 바로 노동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28) 박경수,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0쪽.

다.²⁹⁾ 위 사설은 특히 제창이나 교환창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들이 여음없이 혼자서 부를 때의 노래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남성 구연자에 의해 불린 <발매기 노래>는 발매기를 하다가 일하는 사람의 처지나 신세한탄을 주로 하는 여성과는 다르게, 사설 내용상 대부분 특별한 의미가 없다.

전남 <발매기 노래>의 내용적 특성을 분류하면 ‘금봉채’와 ‘중의 복색’이 중심 소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봉채’는 전남 지역 <발매기 노래> 40편 중 11편에 나타난다. 화자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금봉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사설의 길이는 짧지만, 내용상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발매기 노래>의 사설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중의 복색’은 4편으로 각편의 수는 적지만 사설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화자인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이 된다는 것으로 속세와의 인연을 단절하고 종교적인 귀의로 초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³⁰⁾ ‘임 그리기’는 6편으로, 임이나 첩이 중심 소재로 전개되지만, 공통적인 구성은 나타나지 않아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 ‘발매기’로 분류한 것은 6편으로 ‘금봉채’나 ‘중의 복색’, ‘임 그리기’처럼 소재적인 면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보이지 않지만, 발을 매는 사람의 처지가 다른 사설에 비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발 매는’ 일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사설구성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소재별로 분류한 사설에서 1.1 ‘금봉채’, 1.2 ‘중의 복색’, 1.3 ‘발매기’로 나누어 각각 그 안에서 공통적인 사설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9) 조동일, 앞의 책, 38쪽.

30)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221쪽.

1.1 ‘금봉채’

금봉채는 머리 부분에 봉황의 모양을 새겨서 만든 금비녀로 머느리가 시집을 때 시댁에서 준 예물의 일종이다. 이 금봉채는 관용적 표현으로 머느리를 효과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먼저 여러 각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고정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못다맬발 다맬라다
금봉채를 잃고가네

화자는 발을 힘들게 매다가 금봉채를 잃어버린다. 이것은 ‘금봉채’로 유형화한 11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내용이다. 하지만 사실 구성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민요에서 서로 완전히 동일한 각편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각편은 항상 새로운 것이다. 한 창자가 같은 유형의 노래를 거듭 불러도 항상 새로운 각편이 생겨나게 되어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실은 화자가 금봉채를 잃어버리기 전의 상황이다.

a.기분 좋게 호무자리 들쳐~맬때

<6-8 753 장성군 남면>

b.사래긴발 장천고개 냇가같이 지스발은 낮으로만 매러다가

<6-9 362 화순군 동면>

c.발매러가세 발매러가세 우리친구들은 논빠지고 나두고

우리발 매고 혈렁혈렁 세상을 살아보세

<6-10 401 화순군 도곡면>

위에서 제시한 사실처럼, 화자는 밭매기하러 가기 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밭매기 노래>는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한탄적 어조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a~c는 ‘기분좋게 호미를 들쳐매고’, ‘밭매고 헐렁헐렁 살아보세’, 또 감정이 극대화되는 밤보다는 ‘낮으로만’ 매다가 금봉채를 잃어버린 것으로 다른 각편과 달리 긍정적이다. 다음은 금봉채를 잃어버리고 난 후의 상황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다.

d.금봉채는 잃으머는 전주은방 물모리는 서울송방에 내당해주마
얻었던 인심은 한번잃으면 못 얻으니

<6-4 921 승주군 월등면>

e.다죽엇간디 다죽엇간디 황해장시 다죽엇간디
열냥짜리 내버리고 백냥짜리 내당해줍세

<6-8 79 장성군 장성읍>

f.금봉채 하나에 칠백냥해도 내당혀줍세

<6-8 225 장성군 북하면>

g.금봉채 하나는 옛닷냥 되는데 금봉채값은 내가냄세

<6-8 754 장성군 남면>

h.금봉채값 걱정말우 금봉채값 내가대께

<6-10 608 화순군 춘양면>

d~h는 화자(며느리)가 금봉채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다시 보상(報償)한다. 이 보상은 화자가 금봉채를 잃어버리고 집(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격정되어 한 말이다. 이를 보면 화자인 며느리의 시집살이 고충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봉채는 귀하고 비싼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힘들게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시집 온

며느리의 고난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화자는 잃어버린 금봉채보다 자신의 노동이 더 가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금봉채 값을 자신이 내거나, 더 비싼 것으로 사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어머니 또는 시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긍정적 표현과는 많이 다르다. 또, 잃어버린 금봉채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정든 임’을 찾아간다는지, 잃어버린 금봉채 때문에 죽으면 ‘어떤 이’가 자신을 찾는 것, 즉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에 의존하기도 한다. 사실은 아래와 같다.

i.여기를왔다 그걸을갈까 동해동정 놀다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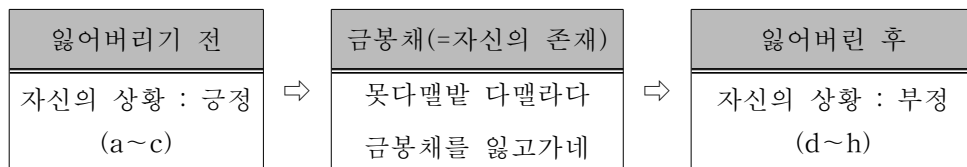
청사초롱에 불밝혀들고 정든님방으로 잠들러가세

<6-8 241 장성군 북하면>

j.이러다저러다 나죽어지면 어떤이가 날찾아올게야

<6-10 124 화순군 능주읍>

이상으로 한 유형에서 제시한 사설구성은 한 편의 사설에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금봉채를 잃어버리기 전과 잃어버리고 난 후의 정서에 따라 각편도 별개로 전승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중의 복색’

중의 복색을 중심 소재로 하는 사설에는 화자가 시집살이나 일의 고됨으로 인해 집을 나간다. 그리고 자신은 ‘중’이 되어 친정이나 시댁으로 다시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밭매기 노래>는 시집간 여자의 생활 처지를 주로 읊고 있는데, 현실을 한탄하거나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속박을 고발하고 항거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노릇을 하는 며느리는 집을 나가는 것으로 말없이 반발한다. 그리고 중의 복색을 하고 시댁이나 친정을 찾아간다. 이 때 며느리는 시집살이의 고됨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지만, 사실 갈 곳이 없는 신세이다. 가출하여 중의 복색으로 친정이나 시댁으로 돌아가는 각각의 사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출

a.호무는 갈가호무 땀약별에 받을매니
하루정일 매고나도 반배끼 못매겼네
에라이것 못살것다

<6-5 207 해남군 삼산면>

b.이골 저골 삼세골을 매고 보니 금봉채를 잃었고야
금봉채를 잃기도 어지한디 집으로 들어가니
그저먹던 식은밥은 사발쪽에 단동만동
그저먹던 김치국은 토국에 단동만동
그저먹던 쟁이랑은 종지국에 단동만동
아이고 이거먹고 고자낭군 생기기도 어려한디 음식조차 유가시네

<6-8 896 장성군 진원면>

c.불과같이 나는발에 논과같이 지심발에 장차고 지는발에 악복악복 매~고
 집이라고 들어가니 엇저녁묵든 식은밥을 나를 주고
 엇저녁묵든 된장국을 종지에담어 나를주네
 여려요건 이려서는 못쓰겠다

<6-9 634 화순군 이서면>

위 사설에는 며느리가 집을 떠나는 이유가 모두 나타난다. 사설 초반에 발을 매는 일에 초점을 두고 보면, 시집 간 며느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는 것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고혜경은 발을 매는 행위를 고난의 시집살이로 해석하고 있다.³¹⁾ 표면적인 내용대로 며느리는 시집 식구들이 박대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 끝내 집을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이 될 결심을 하고 중의 복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사설이 이를 보여준다.

나. 중의 복색

a.저그저그 저중은	<u>목딱이</u> 돌이걸랑	
중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이내목딱이 돌인게	처녀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저그저그 저중은	<u>바랑이</u> 돌이걸랑	
중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이내바랑 돌인게	처녀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저그저그 저중은	<u>속낙</u> ³²⁾ 이 돌이걸랑	

31) 발을 매는 장면에서 의미하는 것은,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니라는 시집 가족의 애매성 때문에 겪게 되는 혼인한 여자의 고난이다. 고혜경, 「서사민요의 유형연구 - 부부결합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1983.

32) 고깔.

나한나 중한나 둘이둘이 나뉘갓세
 이내속낙 둘인게 처녀한나 나한나 둘이둘이 나뉘갓세

<6-2 880 함평군 신평면>

b.깡고깡고 머리깡고 중노릇이나 하고지가
한잔등을 넘어가니 늙은중은 신을삼고
젊은중은 잠을자네 깡가주오 깡가주오
 내머리를 깡가주오 어떠한 기집아가
 생사람을 죽일라고 머리깡가 주락한가
 앞으로가도 날잡을이없고 뒤로가도 날잡을이없네
 머리쪼간 깡클랑게 말쌈도 많하구나
두잔등차 넘어가니 늙은중은 신을삼고
젊은중은 잠을자네 깡가주오 깡가주오
 이내머리 깡가주오 어뜨란 아지마가
 생사람을 죽일라고 머리깡가 주란말이
 웬말이라 그러기요 머리쪼간 깡그라니 말쌈도 많하구나
시잔등차 넘어가서 깡가주오 깡가주오
이내머리 깡가주오 젊은중이 달라들어
 요내머리 깡거노니 왼편썩을 깡클라니
 요내눈에 눈물나고 오른편썩 깡클라니
 난데없는 삭소리바람³³⁾ 주고지고 바랑지고 중노릇을 내가가네

<6-5 207 해남군 삼산면>

c. 열두폭 주래치매 툇툇 뜯어서
 한폭은 뜯어 고깔하고 두폭은 뜯어 바랑짓고
 남지기는 장삼을 지어 시금시금 시어마니
 나는청청(총총) 송장절(송광사)로 절로절로 갈랍니다
 머리 아흔아홉 가닥을 풀이어뜨리고

33) 회오리바람.

아흔아홉 가락을 풀이어뜨리고
한쪽을 깎아 중노릇을 반중이 되었네
마저깎아 아주중이 되었고나
머리메우고 장삼을 들쳐입고
장삼을 입고 바랑을 지고

<6-8 896 장성군 진원면>

d. 열두두푼 잡은치매 한쪽뜯어 바랑엮고
두쪽뺏어서 고깔엮고 절로절로 올라가니
젊은중은 잠을자고 늙은중은 심을삼네
신일락은 젖혀놓고 요내머리 깎아주시오
순수수도 아나가신부인 머리카까잔소린 웬소리요
그런 염려말고 곱게가꾼 요내머리 깎아주소
한쪽머리 깎고나니 치매폭이 다젖는구나
두쪽머리 다깎고나니 무릎뒹밀에 소가된다.

<6-9 634 화순군 이서면>

며느리가 집을 나오면서 중의 복색을 갖추어 중이 되는 과정을 표현한 부분이다. 아홉 폭 치마를 뜯어서 바랑을 지고,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고, 목탁을 들고 있다. 며느리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던 중의 복색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중이 된다는 것은 시집간 여성, 즉 출가외인이 된 여인이 시집에서 나와서 친정에도 가지 못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책이다. 이에 며느리는 중의 복색을 하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가게 된다.

다. 친정/시댁

a. 친정

①저건네가 연방중에 연실따는 저처자야
 니아집이 어데간디 해가저도 아니가나
 내아집을 찾을라거든 저건너라 땅술발에
 서른두칸 뿔짱밑에 그안집이 내집이요
 저그가는 학생들아 무사말고 훨훨가소
 요새나도 살었으며 무안군수 딸이로다

<6-2 880 함평군 신광면>

②친정으로 동양이나 가자

한데문을 열고보니 울아버니 마당썸서
 저그가는 저중은 우리딸도 도성허다
 한대문을 열고나니 울어머니 바느질험시로
 바늘골미 딱던져머리고 나를 쳐다보네~
 저그가는 저중은 우리딸도 도성허다
 울어머니는 나를낳아서 절에중놀이 보낼라고
 나를 내깃소

<6-9 634 화순군 이서면>

b. 시택

①씨누아기 나서드니 엄매엄매 우리엄매

저기저기 섰는중은 우리성님 아주갈고 영영갈네
 에라요년 요망한년 그런소리 하지마라
씨아제가 나오드니 어마니어머니 울어마니
 저기문밖 섰는중은 우리성수 아주갈네
씨어마니 내다보드니 아가아가 내다내다
 원일이냐 원일이냐 이꼴이 원일이냐
 죽었다네 죽었다네 그대문밖에서 죽었다네 죽었다고 활랑하게

<6-5 207 해남군 삼산면>

②우리어머니 받은밥상 밀쳐놓고 상관말리 뛰어넘어

상관말리 뛰어넘어 저기저중은 우리딸도 도승하네³⁴⁾
우리아버지 받은밥상 밑에놓고 상관만리 뛰어넘어
저기저중은 우리딸도 도승하네
내가무슨 직그딸이 날과같이 중이되얏시오
방방문을 덜컹여니 우리동생 썩나서니
저기 저중은 우리누님 과중허다
닉그 누님이 나이(나와)가 같은 같을랴.
정재문을 활짝 열고
저기 저중은 우리 시누와 같은디

<6-8 896 장성군 진원면>

화자는 중의 복색을 하고 친정과 시댁으로 가서 중노릇을 했다. 하지만 화자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

a. ‘나’를 절에 중 놀이 보내려고 낳았냐고 한다.

<6-9 634 화순군 이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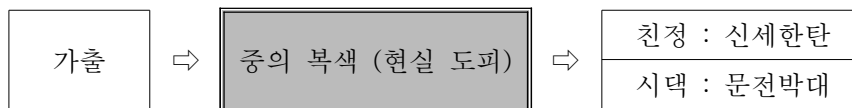
b. 문밖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꼴이 웬일이냐고 한다.

<6-5 207 해남군 삼산면>

중의 복색을 하고 온 사람에게 시부모(시동생)는 자신의 딸과 닮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시 보니 며느리(형수)였다. 이때 시부모는 자신의 딸은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부정적인 마음을 표출한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도 한때 며느리였으며, 당하는 며느리도 친정에서는 딸인데 말이다. 이렇게 중의 복색을 하고 왔음에도 시집살이의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34) 매우 닮았다.

사설 내용상 공간은 친정과 시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며느리의 신세한탄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화자는 중노릇으로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된다.



1.3 ‘발매기’

발매기로 분류해 놓은 6편의 사설에는 은가락지(비가락지), 석자세치, 명지(반포)수건, 바늘골무, 호미자루, 숭어도막 등이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각편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구조는 보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받을 때는 힘든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또, 각 행마다 동일한 규칙성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잔다네	가잔다네	받을매러	가잔다네
2	오네오네	잠이오네	안개같은	잠이오네
3	못하졌네	못하나것다	암만하려해도 아이고	못하나것다
4	날테러가소	날테러나가소	제발덜고 아이고	날테러가고
5	잼이오네	잼이오네	안개같이	잼이오네
6	발매러가세	발매러가세	까끔같이 지신받을	매러나가세
7	못하졌네	못하졌네	요놈의 노릇을	내가 못하졌네
8	강수졌네	강수졌네	비개넘어	강수졌네

도식화한 위의 사설은 힘든 자신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을 하러 가기 싫은 상황과 고된 일 때문에 “잠이온다”거나 “못하겠다”는 등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발매기’의 성격에 맞게 노래하고 있다. 우리의 전

통시거나 민요, 또는 현대시의 일반적인 현상은 음절적 구성에서 완전한 규칙성을 보여주지 않는다.³⁵⁾ 그러나 위 사설은 4음절을 중심으로 하여 사설 내용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다.

‘발매기’로 분류해 놓은 유형 사설은 2음보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민족 전통 시가에서 나타나는 aaba구조와 유사하다.³⁶⁾ 이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리듬감을 살려 표현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사설의 의미

전남 지역에서는 노동요 중 <발매기 노래>의 전승이 특히 활발한 편이다. 다음은 <발매기 노래>를 소재별로 구분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라남도 편에 수록되어 있는 <발매기 노래>는 총 40편이다. 번호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차례대로 제시하였으며, 제목은 구연자나 조사자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자료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옮겼다. 또, 도표에 제시된 지역은 읍·면 단위를 기본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연자의 성별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다. 소재는 경남과 동일하게 사설 내용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출전은 『한국구비문학대계』를 기본 자료로 하였으며, 앞의 숫자는 권 번호이고, 뒤는 민요가 실려 있는 쪽수이다.

35)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89쪽.

36)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 ②가시리 가시리잇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 ③접둥 접둥 아우래비 접둥
- ④형님온다 형님온다 보고싶은 형님온다

번호	제 목	지역	구 연 자	성별	소 재	출 전
1	엄 장	지산	박병천(외2),김옥열(외6)	남,여	기 타	6-1, 487
2	콩밭매기 노래	엄다	천학실(앞),강영진(뒷.외4)	남	기 타	6-2, 313
3	밭매기 노래	엄다	"	남	기 타	6-2, 314
4	밭매기 노래	나산	백정례	여	기 타	6-2, 544
5	밭매기 노래	월야	정석봉	남	신세한탄	6-2, 650
6	밭매기 노래(1)	신광	윤상금, 노팽님	여	중의 복색	6-2, 880
7	밭매기 노래(2)	신광	신문심(외3)	여	신세한탄	6-2, 890
8	밭매기 노래	도양	장옥지	여	신세한탄	6-3, 178
9	밭매기 노래	점암	송복임	여	임 찾기	6-3, 598
10	김매기 노래	점암	송복임	여	신세한탄	6-3, 600
11	콩밭 노래	월등	이소란	여	금봉채	6-4, 921
12	호미 노래	삼산	이난자	여	중의 복색	6-5, 207
13	상사뒤여	화산	윤아기	여	기 타	6-5, 438
14	밭매는 소리	신의	김순례	여	기 타	6-7, 468
15	밭 노래	장성	김귀순	여	금봉채	6-8, 79
16	밭매기 노래	장성	나양님, 김수득	여	임 찾기	6-8, 93
17	콩밭 노래(1)	북하	김분임	여	금봉채	6-8, 225
18	콩밭 노래(2)	북하	김봉례	여	기 타	6-8, 231
19	밭 노래	북하	김삼수	여	금봉채	6-8, 241
20	밭매기 노래(1)	남면	김순예	여	금봉채	6-8, 753
21	밭매기 노래(2)	남면	정일환	여	금봉채	6-8, 754
22	밭매기 노래(3)	남면	정일환	여	임 찾기	6-8, 772
23	밭매기 노래(4)	남면	정일환	여	임 찾기	6-8, 780
24	밭매기 노래(5)	남면	정일환	여	기 타	6-8, 785
25	밭매기 노래(6)	남면	구점례	여	임 찾기	6-8, 788
26	밭매기 노래	진원	정애숙	여	중의 복색	6-8, 896
27	놀다 가소	진원	정애숙	여	기 타	6-8, 899
28	물레노래	화순	장넙니	여	사랑노래	6-9, 259
29	사래긴 청천밭을	화순	박순덕	여	신세한탄	6-9, 264
30	밭매기 노래(1)	화순	박순덕	여	기 타	6-9, 265
31	밭매기 노래(2)	화순	방근목	남	기 타	6-9, 265

32	밭매기 노래(3)	화순	강대열	남	기 타	6-9, 268
33	김매기 노래	동면	김옥금, 조군순	여	금봉채	6-9, 362
34	밭매기 노래(1)	이서	이상순	여	중의 복색	6-9, 634
35	밭매기 노래(2)	이서	김선영	여	금봉채	6-9, 641
36	밭매기 노래(3)	이서	신선진(외7)	남	기 타	6-9, 664
37	밭매기 노래(1)	능주	손순덕	여	신세한탄	6-10, 110
38	밭매기 노래(2)	능주	김기남	남	금봉채	6-10, 124
39	밭매기 노래	도곡	서종두	남	금봉채	6-10, 401
40	밭매는 노래	춘양	김순예	여	금봉채	6-10, 608

<밭매기 노래>는 주로 부녀자들이 부르며 마련이다. 노래의 성격에 따라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와 개인적으로 부르는 노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혼자서 부르거나 한 사람씩 돌아가며 부른다. 기능상 밭을 매면서 부르는 노동요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이 노래는 특정 노동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문제적이다.

사실을 크게 유형화하면 금봉채 11편, 임 찾는 노래 6편, 중의 복색 4편, 신세한탄 6편이다. 기타에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구연자가 남성으로, 논농사요에 해당하는 것을 불렀으며 신세한탄이나 어떤 대상을 형상화하지도 않았다. 엄밀히 따지자면, 기능별 분류에 따른 <밭매기 노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특징이 두드러지는 금봉채, 중의 복색, 신세한탄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것이다.

2.1 금봉채

못다벨발	다맬라다	
얻었던인심을	잃고를갔네	
인심은	금봉채를	잃고가네

금봉채는	잃으려는
전주은방	물모리는
서울송방에	내당해주마
얻었던	인심은
한번 잃으면	못얻느니

<11. 콩밭노래, 월등면, 이소란, 여>

사설의 시작 부분인 ‘못다맬밭 다맬라다’는 전라도 지역에서 고정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시집 온 며느리는 밭을 힘들게 매다가 금봉채, 즉 금비녀를 잃어 버렸다. 밭일을 다 하지 못했거나, 빨리하지 못해 시집식구들에게 인심을 잃는다는 내용으로 금비녀는 금은방에서 살 수 있지만, 얻었던 인심은 한 번 잃으면 얻기 힘들다.

전남 지역 사설 중 가장 많은 소재로 구분되는 이 ‘금봉채’는, 며느리인 자신을 환유적으로 표현했다. 다른 대상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금봉채’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어서이다. 화자는 힘들게 밭일을 하다가 금봉채를 잃어버린 후, 시택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 밭일을 다 하지 못하거나 빨리 끝내지 못해서 인심까지 잃게 된다. 다음 사설을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a. 못다맬밭	다맬라다
금봉채(금비녀)를	잃고가네
다죽엇간디	다죽엇간디
황해장시	다죽엇간디
열냥짜리	내버리고
백냥짜리	내당해줍세

<15, 밭 노래, 장성읍, 김귀순, 여>

b. 못다나멜 발 다멜라다
 금봉채를 잃었고야~
 금봉채 하나에 칠백냥해도
 내당혀줍세

<17. 콩밭노래(1), 북하, 김분임, 여>

위 두 사설에서도 힘들게 밭일을 하다가 금봉채를 잃었다. 그런데 금봉채는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시집을 때 시택에서 자신에게 준 예물인 썸이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걱정이 태산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사설에서 화자가 열 냥짜리 금봉채를 잃어버리고 백 냥짜리로 사졌다는 맥락을 통해 실제 금봉채의 가격보다 자신의 삶이 더 힘들다는 정신적 갈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백 냥짜리 금봉채는 정신적 치유의 보상(報償) 심리로 자신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사설은 금봉채가 중심 소재로 나타나지만, 마지막 두 행은 <22. 장성군 남면, 정일환, 여>의 발매기 노래의 ‘임을 찾는’ 사설과 동일하다.

못다멜발 다멜라다
 금봉채를 잃고난야
 여기를왔다 그걸을갈까
 동해동정 놀다가세
청사초롱에 불밝혀들고
정든님방으로 잠들러가세

<19. 밭노래, 북하, 김삼수, 여>

‘임 찾는’ 내용으로 사설이 마무리 되지만 금봉채를 잃은 것으로 인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임에게 온 것으로 보아 금봉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화자는 금봉채를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를 갈까 거기를 갈까 고민하다 임에게 눌러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든 임에게 간다는 것은 화자가 실제 한 행동이라기보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저가세
누가 저 호무자리
마저가세
요내집이
끈이야 간디 없는디
손님이 오신다니
꿈과같은 일이다
조그만헌 오두막집이
신선같은 나그네가
꾸적꾸적 들어오니
누리마나 쌀밥짓고
거무나마 해오굽구
비리나마 조구찌구
노리나마 계란찜고
꼬부라졌으나 콩나물~
찌 볶구~
신같은 남은그릇은
꼬니먹고 우리
해가멏도록
기분좋게 호무자리 들쳐~맬때

못다뻐발 다뻐라다 금봉채를 일코나(잃어구나)

다뻐라다가 금봉채를 잃고 가는~구나

<20. 발매기 노래(1) 남면, 김순예, 여>

이 사설은 다른 것과 다르게 금봉채를 잃어버리기 전까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밭을 매러 가려는데 손님이 오신다니 꿈같은 일이다. 조그만 오두막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누렁색이지만 밥을 짓고, 검은색이지만 김을 굽고, 냄새가 비리지만 조기 굽고, 노란색이지만 계란까지 찐다. 가난한 집에 손님이 오신다니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차려서 대접하고 남은 것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꿈같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설과 다르게 밭일을 하는 기분도 좋게 나타나 있다. 화자는 기분 좋게 호미를 들쳐 매고 밭을 매는데 금봉채를 잃어버린다. 매지 못한 밭을 매려다 금봉채를 잃어버린 것으로 사설은 마무리 된다.

<u>은가락지</u>	<u>찌는손에</u>
<u>호무자루가</u>	<u>웬말이나</u>
가래질고	장찬고랑
놋가락지도	치셨구나
못다뻐발	다매다가
잃었구나	잃었구나
금봉채를	잃었구나
금봉채값	걱정말우
금봉채값	내가대께

<40. 발매는 노래, 춘양, 김순예, 여>

위 사설에 나오는 은가락지는 금봉채와 비슷한 의미로 며느리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집오기 전 은가락지 끼던 손에 호미자루가 웬말이냐고 반문한다. 사례 긴 밭 다 매다가 결국 금봉채를 잃게 되지만, 며느리는 금봉채 값을 자신이 치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잃어버린 금봉채보다 자신이 더 귀한 존재이니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밭매기 노래>에서 ‘금봉채’를 중심 소재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사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열심히 일을 함 → 금봉채를 잃음 → 더 비싼 금봉채를 자신에게 보상>하거나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내용은 마무리 된다.

2.2 중의 복색

저그저그 저중은	목딱이 돌이걸랑	목딱이 돌이걸랑
중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이내목딱이 돌인게		
처녀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저그저그 저중은	바랑이 돌이걸랑	
중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이내바랑 돌인게		
처녀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저그저그 저중은	숙낙이 돌이걸랑	
나한나 중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이네숙낙 돌인게		
처녀한나 나한나	돌이돌이	나뉘갓세
나는질때가 바쁜게	나갈디로	갈라네
불쑥불쑥 넘는밥	먹고나	가소 질때바빠 못먹겄네

- (창자 바뀜)

저건네가 연방중에 연실따는 저처자야
니아집이 어데간디 해가저도 아니가나
내아집을 찾을라거든 저건너라 땅솔밭에
서른두간 뿔짱밀에 그안집이 내 집이요
저그가는 학생들아 무사말고 훨훨가소
요내나도 살었으면 무안군수 딸이로다

<6. 발매기 노래(1), 신평, 윤상금, 노평님, 여>

이 사설은 ‘중한나 나한나 둘이들이 나와갓세’의 반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일의 능률을 위해 반복적 어구가 자주 쓰인다. 그러나 사설의 내용만으로는 <발매기 노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다. 전남 지방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중’이다. 화자인 며느리는 보통 일을 하다가, 또는 시집살이의 고됨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중’이 되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다.

중은 목탁, 바람, 속낙(고깔)이 돌이니 나누어 가지자고 한다. 며느리는 이렇게 중의 복색을 하고 어딘가로 갈 것이다.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벗어나기 위해 ‘중’이 된다는 것은 속세와의 인연을 단절하고 종교적인 귀의로 초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속세와 단절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친정식구, 사회의 제도적 관계에 의해 맺어진 시집식구와의 인연을 모두 끊는다는 것은 극단의 해결책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신적 갈등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때 한 인간으로서 여인이 겪는 정신적 갈등과 고통은 일시에 해결될 수 없고, 결국 내면화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다.³⁷⁾

구연자가 바뀌어 연속해서 하는 노래에서는 아쉽게도 내용상 연결은 되

37)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221쪽.

지 못하고 있다. 사실에서는 화자에게 해가 저도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묻는다. 여기에서 자신은 두 칸이나 되는 큰, ‘권위’있는 집에 사는 무안군수의 딸로 설정된다. 화자는 친정을 평범하게 서술하여 단지 현실도피나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부당한 속박을 고발하기 위함으로 ‘무안군수’를 친정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중의 복색’을 한 또 다른 사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과같이 나는발에 눈과같이 지심발에
장차고 지는발에 악복악복 매~고
집이라고 들어가니 엿저녁묵든 식은밥을 나를주고
엿저녁묵든 된장국을 종지에 담어 나를주네
에러요건 이러서는 못쓰겠다 열두두푼 잡은치매
한푼뜯어 바랑엮고 두푼뜯어서 고깔엮고
절로절로 올라가니 젊은중은 잠을 자고
늙은중은 신을삼네 신일락은 젖혀놓고
요내머리 깎아주시오 운시수도 아니가신부인
머리깎잔소린 웬소리요 그런 염려말고
곱게가꾼 요내머리 깎아주소
한쪽머리 깎고나니 치매폭이 다젖는구나
두쪽머리 다깎고나니 무릎팍밀에 소(所)가 된다.
아홉상자야 벌서라 친정으로 동냥이나 가자
한데문을 열고보니 울아버니 마당쌈서
저그가는 저중은 우리딸도 도성허다
한 대문을 열고가니 울어머니 바느질험시로
바늘골미 딱던져버리고 나를 쳐다보네~
저그가는 저중은 우리딸도 도성허다
울어머니 나를 낳아서 절에중놀이 보낼라고

나를 내갸소

<34. 발매기 노래(1), 이서, 이상순, 여>

힘들게 밭일을 하고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어제 저녁 먹던 식은 밥과 된장국을 종지에 담아준다. 화자는 이를 참지 못하고 바랑, 고깔 등 중의 복색을 하고 절로 간다. 늙은 중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하여 한 쪽 머리 깎고 나니 치마폭이 다 젖는다. 두 쪽 머리 다 깎고 나면 무릎 밑이 소(沼)가 된다. 며느리는 자신의 신세한탄을 이렇게 중의 복색으로 대신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곳이 친정이다. 화자는 중의 복색을 하고 친정으로 동냥을 간다. 이때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들의 딸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화자인 딸은 ‘올어머니 나를 낳아서 절에 중놀이 보낼라고 나를 내갸소’라며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신세한탄의 말을 하고 있다.

‘중의 복색’이 나타난 사실 4편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집살이나 일의 고됨으로 집을 나와서 중의 복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곳이 대개 친정이며,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 편 있다.

2.3 신세한탄

다음 제시하는 <7. 발매기 노래(2), 신광, 심문심, 이계순, 노표심, 윤상금, 여>는 모두 한 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연자가 달라 내용상 유기적 연관성은 없다.

<신문심>

원수라네 원수라네 집이들면 씨엄씨원수
밭으로가면 보래기원수 정제가면 시누원수

시원수를 딱딱 묶어 극락새로 넣그라네

집(시택)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원수이고, 밭으로 가면 ‘보래기’³⁸⁾가 원수, 부엌으로 가면 ‘시누이’가 원수다. 원수가 되는 시어머니, 보래기, 시누이를 하나로 묶어 ‘극락새’로 넘긴다. 극락새는 아미타불의 정토(淨土)인 이상향을 칭하는 새다. 자신의 힘든 마음과는 반대로 원수를 극락으로 넘긴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계순>

도리도리 샷갓집이 딸한나를 곱게키워
어사감사 사우삼어 시집가든 사흘만에
정제라고 나가보니 아흠시누 섰는정제
나한자가 웬일인가 붓자리만 잡든손이
꾸정물통이 웬일인가 은까락지 찌든손이
호무짜리가 웬일인가 매깃갈이 짓은 보래기
한줄매고 반줄맨게 서산에 해는지고
집이라고 들어가니 즈그라고 먹는밥은
옥쇠같은 쌀밥에다 나라고 주는 밥은
개보리쇠죽을 주는고나 즈그라고 먹는고기
송애도막 먹고지가 나라고 주는 것은
된장찌개 웬일인가 송애도막 먹든입이
된장국도 맛있더라

다음 구연자(이계순)가 이어서 샷갓집에서 딸 하나 곱게 키워 어사감사를 사위로 삼는다. 그런데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부엌을 가보니, 시누이가

38) 앞은 보리 잎 모양이나, 길이는 더 길고 줄기에 매듭이 있다. 매듭에서 뿌리가 나와 뻗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푸른 네 개의 긴 줄기 꽃이 피고 씨앗도 익는다.

아홉 명이나 된다. 친정에서 붓만 잡고 은가락지 끼던 손으로 시댁에서 힘든 일을 하지만 시댁식구들은 옥쇠같은 쌀밥과 ‘숭애도막’³⁹⁾을 먹으면서, 며느리에게 주는 밥은 곁보리를 넣은 쇠죽에, 된장찌개를 준다. 그러나 며느리는 힘들게 일을 해서인지 이것마저도 맛있더라.

<노표심>

저건네라 묵전발은 쟁기가 없어 묵어나지나
소가없어 묵어지나 묵과같이 묵어진다.

화자는 “저 건너 묵전발⁴⁰⁾은 쟁기가 없어 묵어진⁴¹⁾거냐, 소가 없어 묵어진거냐”며 반어적 어투로 노래한다. 소나 쟁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보통 남자들이 힘을 들여 하는 논농사를 의미하는데, 발매기 노래에 채록된 것으로 보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며느리를 타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문심>

시집가든 사흘만에 활짖같이 곱은눈을
못타래가 웬일이여 샷대같이 송그라네
백사장에 시모래는 탐실부처 올리라네
시금시금 시어마니 시금시금 시아버니
내말한말 들으시오 백사장에 시모래를
엇뜨코롬 참질무처 올리랴
애랴 요망시와 외꽃따서 집만지어
내앞에라 올라온나

39) 숭어는 예로부터 음식으로서만 아니라 약재로도 귀하게 여긴 것이다.

40) 오래 묵혀 거칠어진 쌀.

41) 논이나 밭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신문심의 사설에는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눈에 모를 심으라고 하니 며느리는 백사장을 ‘시모래’로 비유하여 자신의 힘들고 억울한 사정을 부처님께 알리려고 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시집온 지 사흘 만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부처님께 참질(讒嫉)을 할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대답은 ‘외꽃파서 집만지어 내앞에 올라온나’라며 한술 더 뜬다. 발매기 노래에서 일반적으로 외꽃은 오이꽃으로 노랑게 기가 질린 얼굴빛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시집살이의 고됨을 한층 더해주니 기가 질릴 만도 하다. 며느리가 윗사람에게 일러바친다는 소극적 반항에 시어머니의 학대는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계순>

오네오네 잠이오네 초롱같은 요네 눈에
안개같은 잠이오네 앓거스니 잠이웃가
누었으니 임이웃가 잠도임도 아니오고
강수졌네 강수졌어 비개넘어 강수졌네

이계순의 사설에는 시집살이가 힘이 들었는지 초롱같은 눈에 잠이 오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 자려고 하나 잠도 오지 않는다고 서술되고 있다. 힘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의지하려해도 임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워있으니 베개 넘어 강수(江水)가 질 정도로 눈물이 나는 모양이다. 고된 시집살이로 인한 화자의 서글픈 심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윤상금>

성님성님 오늘은 장에나 갑시다
장에는 뭇하러가요 오만발것이 다나도
우리부모 아니나드라 갱개등 갱개나무

비단꽃이 피었으니 그꽃한쌍 꺾껴들고
저리가는 저해는 일월이나 받어디련다문
우리성제 누가받아디려

<신문심>

끝아끝아 공옹끝아 야수공단 꽃이피어
꽃이하도 어리길래 손한번도 아디댔더니
꺾껴갔네 꺾껴갔네 요내꽃만 꺾껴갔네
어머니도 들으시오 아버니도 들으시오
이팔청춘 젊은나이 그꽃없이 못산다요
이천석을 가져가도 그꽃만은 놓고가요

윤상금, 신문심이 노래한 두 편의 사설에는 꽃을 주로 노래하고 있다. 발매기 노래가 주로 시집살이, 사랑, 꽃 등을 소재로 하여 일하는 사람의 처지나 생활에 공감되는 노래를 흔히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불렀던 세 명의 구연자와 달리 사설내용에서 발매기를 통한 신세한탄을 드러내지 않았고, 다만 힘든 시집살이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꽃에 비유하여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 위(이계순)와 비슷한 또 한 편의 사설을 살펴보자.

잠이오네 잠이오네
초롱같은 이내눈에
안개같이 잠이오네
어매어매 우리어매
날날적에 곤곤초로 잡쌌던가
곤곤해서 못살겠네

<10. 김매기 노래, 점암면, 송복임, 여>

이 사설에서도 화자는 잠이 와서 못살겠다며 평소 일하는 사람의 고됨을

표출하고 있다. 시집살이로 인한 고되고 피곤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에게 신세한탄을 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물론 친정 어머니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혼자 하는 신세한탄이다.

한재넘어 한가구야 두재넘어도 두가구야
사래질은 청천발을 나혼자만 다매라네
집이라고 들어간게 삼년묵은 간장에다
비상가락 타여주네 골방에는 들어가서
석자시치 명지수건 목에걸고 죽어보세

<29. 사래질 청천발을, 화순, 박순덕, 여>

위의 사설에서 화자는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니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기서는 곱고 아름다운 명주 수건을 걸고 죽는다고 표현한다. 이는 ‘금봉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소재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봉채’(2.1)와 ‘중의 복색’(2.2)은 그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신세한탄(2.3)에서는 비유한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극락새, 은가락지, 꽃 등 비유적 소재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록 대상은 다양할지라도 내용적인 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되기에 ‘신세한탄’으로 구분하였다. 또 별도로 사설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임 찾기’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은 사설구성이나 전개방식은 다르지만, 임이나 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동일한 군(群)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사설 내용상 별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내용 분석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남 <밭매기 노래> 사설의 내용적 특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보

았다. 평민들은 생활과 삶의 체험을 공유하였으므로 사고체계나 의식구조도 유사하였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의 정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이 있는 생활현장에서 노래를 부름으로써 지루함을 덜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인식, 감정을 구연자가 자세하게 표현한다. 일의 고됨, 신세한탄, 소망 등을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함께 다양한 비유적 방법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IV. 지역별 전승양상과 의미

민요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폭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어 불리는 경우 본래의 지역적 특성이 점차 희석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지역민의 생활방식에 밀착되어 전승되는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기도 한다.⁴²⁾

본고에서는 경남·전남지방의 <밭매기 노래>를 대상으로 하여 각 지방별로 유형과 유형적 차원의 주제를 파악하고, 사설에 나타난 표현과 소재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남과 전남의 <밭매기 노래> 사설에서 나타나는 독자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경남지방에는 산맥과 들판, 바다, 강 등 두루 갖추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도 풍부한 민요가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 침략 이후 경남 지방은 남쪽 항만을 통한 외국 문물과의 접촉과 유통이 잦았기 때문에 외래문화의 침투와 함께 인구의 유동도 많았다. 또한 해방 후의 전쟁과 부산·마산·창원·울산의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농어촌을 떠난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았다. 이처럼 빈번한 인구의 전·출입,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농어촌의 공동화는 이 지방의 토착문화 토속민요를 빠른 속도로 쇠퇴시켰다.⁴³⁾ 이러한 근원으로 경상남도 <밭매기 노래>는 사설이 다양하게 전승되지 못한 것이다.

경남 지역 <밭매기 노래>의 사설구성은 일의 고됨과 시련이 주로 반복된다. 모두 11편의 사설 중 9편에서 일의 고됨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시련은 내용적 분류에 따라 다시 나뉘어졌다. 밭일을 하다가 친정부모의 부

42) 박경수, 「부산지역 민요의 유형과 성격」, 한국민요학, 제12호.

43) 전정효, 「경남 민요의 인식」, 『한국민요대전』, MBC, 1995, 20쪽.

고 소식을 듣는 것과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점심을 주지 않는 것,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유형의 작품은 각각 5편과 4편에 해당된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어디에도 한탄할 곳이 없어 의지할 곳을 찾는다. 그 대상은 ‘임’이 되기도 하고, ‘중’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경남 <밭매기 노래>에서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의 기능이 사설에서 뚜렷하게 표출된다.

반면에 전남 지역은 평야와 산지, 그리고 해안과 섬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경남에 비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설 수록 양상이 비교적 다양하게 전해진다. 산악지대가 발달한 경남과는 달리 전남은 평야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쉬운 만큼 민요의 전승도 자유롭다.⁴⁴⁾ 그만큼 <밭매기 노래>의 전승도 경남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내용상 특징과 사설 구성,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단조롭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전남 <밭매기 노래>의 내용적 특성에 따른 분류는 몇 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전남 지역 사설 40편 중, ‘금봉채’는 11편으로 화자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금봉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설 내용이 그리 길지 않지만, 내용상 분류에 따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 ‘중의 복색’은 4편으로 각편의 수는 많지 않지만 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또 ‘임 그리기’는 6편으로 공통되는 사설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임이나 첩이 중심소재로 전개된다. ‘밭매기’로 분류한 6편의 사설에서도 공통적인 사설구성은 드러나지 않지만 밭을 매는 힘든 상황의 반복적 표현으로 규칙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전남지역에서는 사설이 다양하게 전승되면서 일정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요는 사회적 통념에 구속받지 않고 평민의 생활을 토대로

44) 고혜경, 「전남 지역 민요 사설의 성격」, 『한국민요대전』, MBC, 1995, 58쪽.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민중의 생활 속에서 함께 존재하면서 우리 문화 형성과 전개에 기본을 이루었다. 하지만 민요의 전승 현장을 현장 그대로 채록하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도 전승 현장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기가 어려움은 물론, 구연자들의 내적 상황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장 채록을 위해 구전 현장 밖의 사람이 구전 현장에 개입하게 되면, 그 현장은 적든 많은 왜곡이 일어나게 마련이다.⁴⁵⁾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그 지역의 전승양상과 문화적 의미를 보편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소 산발적으로 채록된 자료들이라도 연구자들에 의해 민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유할 수 있다면 제한된 자료 범위 안에서라도 <밭매기 노래>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45) 박관수, 「민요의 향유론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한국민요학 제20집, 2007.

V. 결론

이상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밭매기 노래>를 대상으로 각 지방별로 유형과 유형적 차원의 주제를 파악하였다. 또 <밭매기 노래>에 나타난 표현과 소재를 통해 내용상 특징과 사실구성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요는 구비문학의 다른 어느 장르보다 민중 생활과 밀착되어 존재하면서 생활상의 일정한 필요성에 따라 불리는 노래이다. <밭매기 노래>는 주로 여성들이 비교적 힘을 적게 들이며 오랜 시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의 처지, 신세한탄, 여성들의 생활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밭매기 노래>는 총 107편이다. 그 중 전라남도는 40편과 경상남도는 11편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실의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경남 <밭매기 노래>의 사실구성과 표현방식, 그리고 사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경남에서는 밭매는 일로 인한 노동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 사실이 4·4조 형태의 정형성을 지니고 있었다. 내용상 친정부모 부고와 시집살이 신세로 두 가지의 사실 구성으로 분류된다. ‘친정부모 부고’는 <일의 고됨 → 부고(소식) → 시련>으로 볼 수 있고, 시련의 대상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올케 등 사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시집살이 신세’에서는 <일의 고됨 → 점심을 주지 않음 → 시련>을 겪는 것으로 보았다. 화자는 시련 후,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임’을 찾기도 한다. ‘친정부모 부고’나 ‘시집살이 신세’에서 자신의 신세한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 골,

두 골, 세 골, 받을 맨다’(고난)는 사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경남 <밭매기 노래>에서 공통적으로 ‘일의 고됨’은 드러나지만, 시련을 맞게 되는 과정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일의 고됨, 친정부모 부고, 시련, 기원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사설마다 특징적인 구조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전남 <밭매기 노래>의 사설구성과 표현방식, 사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전남에서는 사설이 많은 만큼 형식과 소재, 비유적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본 4·4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넘나들이 심해서 경남에 비해 규칙적이지 못하다. 또 자신의 신세나 처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노래의 길이에 나타나며 사설 자체만으로는 <밭매기 노래>의 기능적 성격을 알기 어렵다. 사설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금봉채 11편, 중의 복색 4편, 신세한탄 6편이다. 경남과 마찬가지로 소재별로 뚜렷한 구분이 되어 지역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 감정을 다른 지역에 비해 자세하게 표현한다. 일의 고됨, 신세한탄, 소망 등을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함께 다양한 비유적 방법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첩이나 임을 찾는 노래도 6편이 있지만, 사설에서 공통된 특성을 찾을 수 없어서 분석 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 기타에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구연자가 남성으로, 논농사요에 해당하는 것을 불렀으며 신세한탄이나 대상을 형상화하지도 않는다. 엄밀히 따지자면, 기능별 분류에 따른 <밭매기 노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Ⅳ장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그 의미로 지역민의 생활의식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산간지방이 많은 경남지방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민요가 다양하게 전승되기 힘들었고, 그에 비해 전라남도는 평야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하여 왕래가 쉬운 만큼 사람들끼리 생활의식과 처지를 활발히 전하였다. 구비문학의 특성상 전승이 활발한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가 덧보태어지면서 내용 또한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느 한 시기에 공통적인 유형으로 지역적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밭매기 노래>중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를 연구범위에 한정하여 사실구성과 표현방식, 사실의 내용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적 전승양상과 그 의미를 찾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한정된 연구범위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다른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와 특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밭매기 노래>의 깊이 있는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1-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 참고자료

『MBC 한국민요대전』, (주)문화방송, 1995.

강등학, 『한국구비문학개론』, 민속원, 2003.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동문선, 1998.

고혜경, 「서사민요의 일유형 연구 - 부부결합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1983.

_____, 「전남 지역 민요 사설의 성격」, 『한국민요대전』, MBC, 1995.

_____, 「전통민요 사설의 시적 성격 연구 : 농업노동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0.

곽진석, 『한국 민속 문학 형태론』, 월인, 2000.

권오경, 「어사용의 유형과 사설구조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영남권 <논매는소리>의 전승양상과 사설구성의 특질」,
『한국민요학』 12집, 한국민요학회, 2003.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서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집,
한국여성문학회, 2003.

_____, 「<발매기 노래>에서의 죽음에 대한 신화적 해석」, 연세대학교, 2001.

김경숙, 「민요의 인식과 개념」,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 김기현 「시집살이노래의 구연특성과 그 의미」, 『어문론총』 26집,
경북어문학회, 1992.
- 김기현 · 권오경, 『영남의 소리』, 태학사, 1998.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90.
- 김승찬 · 정상진 외 『한국의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삼영사, 2001.
- 김종식, 「시집살이요 비교 연구」, 『민요론집』 제4호, 민속원, 1995.
- 김현선, 『한국구전문요의 세계』, 집문당, 1996.
-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 리상각, 『조선즉구전문요집』, 한국문화사, 1996.
-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 _____, 「부산지역 민요의 유형과 성격」, 『한국민요학』 12집,
한국민요학회, 2003.
- 박관수, 「민요의 향유론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한국민요학』 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 박춘우, 『한국 이별시가의 전통』, 역락, 2004.
- 서영숙,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2002.
-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 신경림, 『민요기행 1, 2』, 문이당, 2005.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1991.
- 임동권, 『한국민요사』, 한국학술정보(주), 2002.
- _____, 『한국민요집』 I-VII, 집문당, 1961~1992.
-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한국민속학』 21집,
민속학회, 1988.
- 장덕순,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7.
- 정상진 · 이현홍 · 김승찬 외 『한국의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삼영사, 2001.

- 정상진·박경수, 『한국 구비문학의 세계』, 세종출판사, 2004.
- 전정효, 「경남 민요의 인식」, 『한국민요대전』, MBC, 1995.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8.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 1983.
- _____,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제 3판, 2001.
- _____,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9.
- _____,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율격』, 지식산업사, 1996.
- 조성일, 『민요연구』, 한국문화사, 1996.
- 최 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